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金澤玉 주 간 文忠誠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金美辰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직) 54-2278 · 2279
인쇄: 한라일보사

제463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2년 11월 24일 화요일

1

대통령선거투쟁 총력전에 돌입 제총협에선 '꼭투표하기운동'등 벌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일이 12월18일로 확정·발표됨에 따라 학내 대선준비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민자당 제집권 저지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대학교 운동본부'와 '민주대통령후보 제주지역학생선거운동본부'에서는 각각 공감단발족식, 결성식을 갖고 대선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총협운동본부 발족식

지난 11월20일 법정대중강당에서는 민자당 제집권 저지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총협운동본부 발족식'이 열려 남은 28일의 대선투쟁 기간동안 1만2천 제총협학우의 총단결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발족식은 김유경(국문4) 학우의 사회로 ▲1부-문예·사물놀이패 공연 ▲2부-△예국의 레 △운동본부장 인사 △운동본부 사업기조 △각 대학 결의 △1만2천 행동지침 발표 △결의문 낭독 ▲3부-실천투쟁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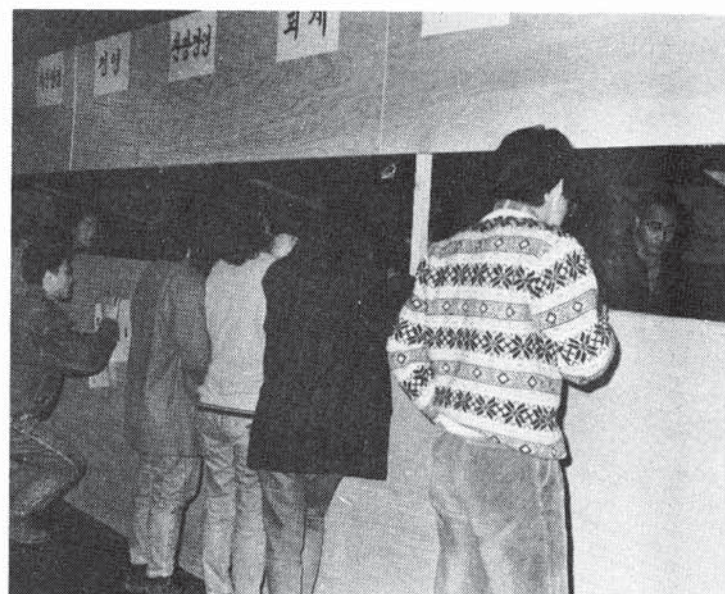
발족식에서 제총협은 △꼭 투

공감단 발족식

대선운동본부 공정선거감시단(단장 이영심 총여학생회장 국문4)에서는 지난 11월24일 오후 2시에 법정대중강당에서 '공정선거감시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감시 활동에 들어갔다.

공정선거감시단은 △적극적인 투표참여운동 △아르바이트 선거운동 안하기 운동 △부정선거감시·고발운동 △투·개표 참관인 활동 △공정언론 생취운동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 11월19일자 집계된 단대별 공정선거감시단 현황을 보면 △인문대 23명 △경상



대입원서 접수시작... 막판 눈치작전 치열할 듯

〈방학중학사일정〉
△12월7일: 동계방학 △12월31일: '92학년도 종무식 △12월22일: '93학년도 신입생 입학시험 △'93학년 1월 4일: '93년도 시무식 △1월중순: 각대학원 입학시험 △1월중: 졸업사정 △2월20일: 제37회 학위수여식

'93학년도 신입생모집 원서접수가 11월23일부터 시작, 오는 27일 오후 5시에 마감된다. 총 55개학과 1천9백9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우리 학교 원서 접수현황은 24일 오후5시 현재 전체의 16%인 3백30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원서접수창구가 마련된 체육관)

여성정책 설명회

성폭력 척결, 부정선거저지 및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총여학생회 선전단(단장 김란영 화학3)에서는 11월25일부터 26일까지 여

학생휴게실에서 '여성정책 민주대개혁 설명회'를 갖고 있다.

올바른 여성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대선에서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에는 정선대 관련 비디오편역과 먹거리 판매 등의 행사도 마련돼 있다.

학선본 결성식

민중대통령 후보 제주지역 학생선거운동본부(이하 학선본)는 지난 11월18일 70여명의 학우가 참가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현 민자당 정권과 보수세력에게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결성식에서 학선본 본부장 김용환(중식 3)학우는 투쟁선표문을 통해 "대선투쟁의 승리는 당선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정치 권력의 일주체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이라면서 "소수이지만 다수에게 진리를 외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는 ▲문예행사 ▲본행사 ▲민중의례 ▲본부장 인사 ▲각단위 본부장 인사 및 결의 ▲활동에 따른 경과보고 ▲민중후보 정책에 대한 기조발표 ▲결의 다지는 시간 ▲투쟁선언문 낭독 ▲학내 선전전으로 이어졌다.

학풍개혁을 위하여 〈12〉

고시반 활성화 서둘러야

새벽2시경이면 소란스럽던 학생회관도 어둠에 묻히고 학교는 고요한 정적속에 휑하게 되는데 법정대와 경상대 3층의 불빛은 마지막 어둠사이로 꺼질 줄을 모른다.

28명(법정대 12명, 경상대 16명)의 고시반 학우들이 각종 고시준비 및 시험공부를 하느라 밤을 꼬박 새우고 있는 것이다.

고시준비를 함에 있어 열악한 우리학교와 도내의 여건속에서 홀로서기를 해야만 했던 난관을 극복하고 학업분위기 조성 및 고시준비의 전문적 활성화와 아울러 보다 높은 성취율을 이루어내기 위해 '88년 (법정대)과 '90년(경상대) 어렵사리 마련한 고시반에서 따듯한 열기가 배어나고 있다.

'91년도에 전호정(법학3)동문과 오성철(경영3)동문이 우수한 성적으로 담당하고 나서부터는 고시반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적어도 고시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학교에서 고시반의 향학열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의욕적인 생활은 우리학교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고시반내의 면학분위기조성에 있어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에서 지원되는 것은 약간의 장사초벌, 모의고사 실시 등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이 전부일뿐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줄려는 열의는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개선대책과 아울러 우리학교 고시반인 경우 각종시험정보와 여학교 교육 시청각 강화 등을 실시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도 절실한 실정이다.

고시반이 학교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학교는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여학교·고시강좌 등을 수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고시반 학우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법정대고시반 지도교수인 권영호(법학)교수는 "고시반이 있다는 것은 자기발현을 하는 데 있어 학우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시반분위기는 어려운 생활환경속에서도 무르익고 있다. 단지 고시반정원이 16명인데 고시반에 입실하려는 학우들의 열의가 부족해 아쉽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학우들도 고시반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시험, 모의시험에 같이 응시하는 등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당부한다.

경상대에도 경영학과, 회계학과 학생들이 주축을 이룬 고시반이 있으나 이들도 공간이 협소해 책상에 책을 펼칠 공간도 모자란 실정을 토로하



로 갖는 등 정보교환이 활발하고 교내외로부터의 장학지원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어 고시반 입실부터 학우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한 학교의 정책적 지원 역시 풍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학교에서는 그에 대한 뒷받침이 형식에 치우쳐거나 지원규모도 협소하다 하겠다.

교수들의 무관심 또한 열악한 환경 못지않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고시반의 사정이 지도교수만의 일이 아니라 학과 내지 단과내차원 아니, 그이상의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공부하는 방법·방향제시 등 갖은 대외로써 조언을 해주고 격려를

고 있는 형편이다.

어떤 이름이 기억되는가. 갈릴래오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기존 세계의 인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세인들은 말했다. 이것은 도전이 아니라 진리였다.

그러하듯 학생들의 개인적·사회적 성취를 위해 투자되는 학교의 지원은 갈릴래오의 주장만큼이나 명확한 수확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다소 무리한 비유였겠지만 학우들의 학문적 내지 직업적 성공을 위한 우리학교의 소극적 지원의 현실을 놓고 볼때 이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때인 것이다. [김정훈기자]

들하트방

마무리는 됐는가

'새벽'과 '일몰'은 흔히 한해의 시작과 끝, 혹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새벽이 다가오고 어두웠던 하늘이 환해지면 사람들은 흔히 희망이라는 말로 이를 표현한다.

새벽이 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해가 떠오는 것은 종종 불안과 허무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밤을 새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이 다하기도 전에 주위가 환해져 오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느끼게 되는 감정이자. 밝아오는 동쪽하늘을 보며 가능하다면 태양을 지평선 아래에 묶어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도 한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바라보는 일출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며 새벽의 신선한 공기도 그리 달갑지 않다.

많은 계획과 희망속에서 시작했던 '92년의 생활도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다.

중강, 기말고사, 겨울방학, '93년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새벽 5시

부터 7시까지 해가 뜨려는 초조한 시간과도 흡사하다. 지난 밤동안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 특히 그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의 찝찝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올 한해의 일들이 미처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맞는 세도 또한 그러하다.

대학발전계획 학사부문을 확정짓기까지 학과신설의 필요성과 외대 신설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 음악·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와 생활문화대 및 예술대 편입에 대한 갈등 등 학교측이 제시한 대학발전 계획안에 대한 반발의 연속으로 한해를 보냈다. 비민주적인 학사운영과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없음이 근본문제로 제기됐으나 이런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식의 대처만으로 지탱되어 왔다.

대학발전기금 조성운동 문제도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 필요성이 제기됐고, 1차목표 연도인 금년말까지 목표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으로 애초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학생회관 신축문제는 '90년 착공당시 '91년 1차완공을 거쳐 1·2층을 사용하게 하고 '92년 최종완공을 계획 했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아직 완공의 기미를 엿볼 수 없다.

학생회사업에도 예외는 아니다.

총학생회 회칙개정 문제가 '91년도 학생회 사업에서 '92년도로 미뤄졌으나 단한번의 회칙개정장을 위한 모임도 이뤄지지 않았다. 총대의원회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회피해 버릴 수는 없는 감사문제 또한 그렇다.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운영을 학교측에 주장하면서 경각 학생회에서는 감사조차 한번 이뤄지지 않은 채 한해를 마감 하는 것은 개운치 않은 무언어가 아직 남아 있다.

'92년 한해는 우리학교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 해였던 것 같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시원히 해결되지 못했다. 동료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린 미끼를 먹으려다 낚인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다시 미끼를 물게 되는 물고기의 기억력처럼 아득한 우리에게 일어난 지난 1년의 일들을 기억의 저편으로 미뤄두고 있다.

'93년을 힘있고 희망차게 맞이 위해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92년의 과제들을 해결하거나 방만제시라는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한다. 새벽을 기쁘고 희망차게 맞이 위해 아직 남은 어둠의 기간을 정리와 마무리 혹은 도약을 위한 토대로 일구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辰]

1993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

1.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 학	계 열	모 집 학 과 및 입 학 정 원
인 문 대 학	인 문 계	국어국문학과(40), 영어영문학과(40), 독어독문학과(40), 일어일문학과(40), 중어중문학과(30), 사회학과(40), 사회학과(40)
	예 · 체 능 계	음악학과(40), 미술학과(40)
법 정 대 학	인 문 계	법학과(50), 행정학과(50)
	이 간 강 조	법학과(30), 행정학과(30)
경 상 대 학	인 문 계	경영학과(50), 관광경영학과(40), 회계학과(50), 무역학과(40), 경제학과(40)
	이 간 강 조	경영학과(30), 회계학과(20)
사 법 대 학	인 문 계	국어교육과(20), 영어교육과(20), 사회교육과(15), 상업교육과(10), 국민윤리교육과(10)
	자 연 계	수학교육과(20), 과학교육과(15)
농 과 대 학	자 연 계	농학과(40), 원예학과(40), 축산학과(40), 농화학(40), 수의학과(40)
	인 문 계	농업경제학과(40)
해 양 과 학 대 학	자 연 계	어업학과(40), 종식학과(40), 해양학과(40), 해양환경공학과(40), 해양토목공학과(30)
	자 연 계	물리학과(40), 생물학과(40), 화학(40), 식품영양학과(40), 수학과(40), 가정관리학과(30)
	예 · 체 능 계	체육학과(40)
공 과 대 학	자 연 계	식품공학과(40), 기계공학과(40), 통신공학과(40), 에너지공학과(40), 정보공학과(40), 전자기공학과(40), 전기공학과(40), 화학공학과(40), 건축공학과(40)
	예 · 체 능 계	산업디자인학과(40)
총 계		55개학과(1,990명)

*전공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 음악학과: 성악10명, 피아노10명, 작곡4명, 관악(트럼펫1명, 트럼본1명, 호른1명, 플룻1명, 오보에1명, 클라리넷1명), 현악(바이올린5명, 비올라2명, 첼로2명, 콘트라베이스1명) • 미술학과: 한국화13명, 서양화15명, 조소12명
•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 8명, 지리교육 7명 • 과학교육과: 물리교육 8명, 생물교육 7명
•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10명, 공업디자인 10명, 산업공예 20명

2.지원자격

가고등학교 졸업자(1992학년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사범대학 지원자는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최종 출신학교(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의 사범대학 입학 추천을 받는다.

3.지원방법

가. 지원자는 제2지망까지 복수지망 할 수 있으며, 제2지망은 제1지망과 동일한 계열내의 학과에 지망하여야 함.
나. 사범대학 이외의 대학에 제1지망한 자는 사범대학 각 학과에 제2지망할 수 없으며 예·체능계 학과를 지망하는 자는 제2지망할 수 없음.
다. 산업계 근무자로서 특별전형에 지원자는 야간강좌 학과에 한하여 제2지망할 수 있음.

4.전형방법

가. 일반전형

1) 일반학과 성적 반영비율 및 배점(사범대학 제외)

구 분	학 령 고 사 성 적	고 교 내 신 성 적	계	비 고
비 율	70%	30%	100%	
점 수	340점	145.7점	485.7점	

2) 예체능계학과 성적 반영비율 및 배점(음악·미술·체육(체육특기자), 산업디자인학과)

구 분	학 령 고 사 성 적	고 교 내 신 성 적	실 기 고 사 성 적	계
비 율	60%	30%	35%	100%
점 수	170점	145.7점	170점	485.7점

3) 사범대학 성적 반영비율 및 배점

구 분	학 령 고 사 성 적	고 교 내 신 성 적	면 접 고 사	고 교 성적 및 인성검사	계
비 율	60%	30%	5%	5%	100%
점 수	340점	170점	25점	25점	560점

나. 특별전형

1) 산업계 근무자 특별전형=전형방법은 일반학과와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특별전형자 중에서 성적순위에 따라 모집인원을 선발함.
2)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전형방법은 체육학과와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법(실기고사는 별도 기준에 의함)으로 하며, 특별전형자 중에서 성적순위에 따라 모집인원을 선발함.

5.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1992년 11월 20일(금요일)~11월27일(금요일) 09:00~17:00

본대학교 정문 수취실 (전화 54-2081)
농협중앙회 서문시지회 (전화 718-4711)
농협중앙회 부산시지회 (전화 241-4194)
농협중앙회 인천시지회 (전화 882-0021)
농협중앙회 대구시지회 (전화 23-9851~8)
농협중앙회 춘천시지회 (전화 54-4491~5)
농협중앙회 대전시지회 (전화 253-8515)
농협중앙회 청주시지회 (전화 53-5101~7)
농협중앙회 완주시지회 (전화 252-5161~6)
농협중앙회 광주시지회 (전화 527-6501)
농협중앙회 남제주군지회 (전화 62-3111~7)

나. 원서접수: 1992년 11월23일(월요일)~11월 27일(금요일) 09:00~17:00 본대학교 체육관

6. 학력고사일: 1992년 12월 22일(화요일)

7. 합격자발표: 1993년 1월6일 이전 본대학교 종합운동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을 참조하고 교무처 교무과(전화 54-2011~2)로 문의 바람

社説

종강에 즈음하여

8월 하순, 殘暑의 더위가 가시지 않은 채 청명한 가을바람이 불기를 고대하면서 시작된 1992학년도 제2학기의 강의가 벌써 겨울의 문턱에서 문을 닫으려 하고 있다. 한 학기동안 각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말시험이 끝나면 지나간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된다. 재학생에게는 즐거운 방학이 되겠지만, 졸업할 눈 앞에 둔 대부분의 4학년 학생에게는 취업의 문제 등이 있어 괴로운 시기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졸업을 앞둔 학생에게나 재학생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 해주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고, 또한 답답한 심정을 우리는 금할 수 없다. 오늘의 이 사회의 모든 면이 얽힌 실타래와 같아서 언제 풀려서 제 軌道를 찾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물줄기가 바꾸어 지는 시점이 있듯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젊음의 열기로 匡正된 사회를 향해서 투쟁하고 있는 노력이 주효하여 제 軌道를 달리는 사회가 필연코 오리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 젊은 학생들은 오늘의 모순과 내일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갈등과 乖離를 느끼겠지만, 이 사회는 역시 자라는 새 세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래의 희망과 포부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

방학을 앞두고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도 간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經營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커다란 비중을 두고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하겠다. 지나간 세월이 나태했음을 한탄만 해봐야 흘러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항상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의 유무는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며, 또한 방향에서의 逸脫을 수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반성을 전제로 할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자기의 생활을 철두철미 하게 점검하여 장래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선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空想에 지나지 않는다.

지향하는 목표가 확고해질 때 해야 할 일들의 범위가 확정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학이라는 배움터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진로의 방향이 무슨 책을 어떠한 식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게 될 것이다. 진로의 결정은 자신의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스스로 많은 시간을 숙고한 후에 善知識이나 부모, 선생이나 선배들의 조언을 참고로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진로가 결정되면, 이의 목표달성을 위해 일로 매진하여야 하겠다.

대학4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긴 기간이 아니며, 자기에 주어지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親友들과의 교제와 같은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의 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親友와의 사귄을 경시하여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친구는 시간 도둑놈"이라는 격언이 있듯이, 親友와 너무 어울리다 보면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가령 매일 읽어야 할 분량을 정해 놓고, 주위의 雜事를 제쳐놓고 읽어나가는 식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애기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아라바이트하는 것을 그리 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용돈이 없어서 차를 마시지 못하고 더딘 양말을 신고 다닐지언정, 그 시간에 책을 읽어 두는 것이 더 값지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시절에 책을 정력적으로 읽어 두지 않으면, 번잡한 사회생활은 차분하게 독서할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겨울방학이다. 이 기간에 스스로를 잘 성찰하여 자신을 위하여 정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내일이 있다고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의 일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 다짐해보자.

알림

이번 제463호를 끝으로 제2학기 신문을 중단합니다. 다음 호(제464호) 신문은

1993년 1월5일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無論有說 暮說

고질적 '답답증' 치료책은 없는가

올해도 어김없이 낙엽이 지매 가을이 온줄을 알고 한라산에 눈 내렸다는 소식에 겨울이 온줄을 안다. 겨울이 오면 곧 세모가 닳아져서 우리 이 한해 어떻게 살아왔고? 경주마 달리듯이 앞만보고 달려온 우리 열두달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우리 옆에 무엇이 있었는지, 지나갔는지 불려고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더욱 바빠지지만 하는데 보따리에 든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그게 그거. 하루 세번 정도는 나를 돌아 봐야 될것 같은데 한해의 끝에서 이제사 날 보는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지?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지?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벽은 벽이고, 길은 길이어야 하는데 사람 갈 길은 사람이 가고 차 갈 길은 차가 가야 하는데 공부시간은 공부시간이어야 하고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발자국 저기도 광고지 여기도 풍초 저기도 휴지 여기도 차 저기도 사람 이때도 확성기소리 저때도 광고소리 어허 참 어지럽다 우리의 터전



어허 참 몽롱하다 우리의 의식

바다 건너 어떤 나라의 늙지 않은 사람들 대통령이 되었는데 우리 이제 스페인 투우사 놀이는 그만하고 머리속도 채워야 하고 다리힘도 올려야지 또 잿밭엘랑 관심 버리고 우리의 본분을 찾아 우리 손 잡고 나가야지. 그레, 우리모두 이 계절에 자양분이 가득한 알곡이 되고

저! 우리의 이 터전은 어떤 귀신만을 위한 곳판이 아니요 그런 무당이 있으면 내몰아 야자요 그런 박수가 나오면 내쫓아 야자요 우리는 서양 영화의 주인공 같은 그런 로봇트가 아니요 우리는 남의 장단에 그렇게 춤추는 꼭두각시가 아니요. 진짜 지성이란 말이요

사년전에 교문 들어설때 그때 각오와 그 머리속은 사년후에 교문 나설때 지금 생각과 지금 머리속과는 어떻게 달라 졌나요?

지난 봄에 연초록 새순 난지가 어저께 같은데 유별나게 아름답던 울가을

단풍도 벌써 다 졌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기뻛던 한해 어떤 사람에게는 슬펐던 한해 이 사람에게는 보람찬 한해 저 사람에게는 허무한 한해 그러한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대통령선거, 대학입학시험, 두가지 큰일이 아니라, 이 연말을 온통 들끓게 하고 나면 1992년의 해는 저 산넘어로 저 바다 밑으로 사라지겠지. 세월은 유수갈고 쓴 살 같다 했지만, 젊음이 들어여! 잘 모르는 세월은 잡히지도 않고 빨리만 지나가요. 젊음이 들어여! 그러나 우리 앞에는 또 때 묻지 않은 세월들이 있기는 하오. 여러분들의 세월이. 나는 우리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며 말 못하는 '답답증'으로 고심하고 있다. 겉게 그림에 그려져 있는 죽창을 보면, 건물에 길게 느린 붉은 천을 보면, 등교 시간

에 교문에서' 팔흔드는 학생들을 보면, 박살내자 파탄내자 구호를 들으면, 보도블록을 열심히 깨는 여학생을 보면, 복면하고 막대기든 시위학생을 보면, 흠뻑러진 최루가스를 맡으면 가슴이 답답해 진다. 눈물이 난다. 이모든 상황들이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올해도 나의 이별은 낫지 못하고 또 지나간다. 이제 이 겨울을 보내면 이천명의 새소망들이 아라 교문을 들어설 것이다. 겨울은 구호를 먼저 배우지 아니하고 도서관엔 무슨책이 있으며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봄철에는 무슨 세미나가 열리는지, 어떤 동아리에서 취미를 살릴지 있을지 먼저 배우게 되면 좋겠다. 여기는 학교이니까, 마지막 학교이니까. 찬바람이 그치고 따뜻한 새봄별이 이교정을 조일때면 내이 한 소망이 이루어 질까? 그래서 이 '답답증'도 없어질까? 이 한해를 보내며 꿈 꾸어 본다.

(생물학과 교수)



교수동정

▲오현도(농대대학·농학)교수=지난 11월20~21일 양일간 서울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농과대학 심포지움과 11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농과대학협의회 세미나(A·A·A·C·U)에 참석.

▲이순형(교과과)교수='한국교육학회'감사로 피선(임기는 '93년부터 '95년까지 2년).

▲양기천(수의학과)교수=지난 11월22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93년도 제주도에너지협회 회장에 유임.

발간소식

『민주정부』발간
국민회의 위상홍보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1일 『민주정부』지를 펴냈다. 대선이 끝나는 시기까지 주 1회 발행예정인 『민주정부』는 '국민회의'의 위상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대선에 있어서 정권교체 실현과 관련되는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상황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민주정부』지는 국민회의에서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하

고 있는데, 제주지역에는 4천부가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남』창간호 발간
적십자와 정치등 실려

적십자회(회장 홍세일)에서는 지난 11월경 제1호 회지 『부남』을 발간했다. 적십자와 정치를 특별기획으로 다루고 있는 이번 호에는 △적십자 7대 기본원칙 △대학 적십자 클럽 창립 취지문 △이런 RCY인이 되려면 △수상안전과 교육을 받고나서 △적십자인은 하나다 등 회원들의 체험담 5편 △전정환 '용기', 어떤 사람의 '넋두리' 등 수필 4편 △시 5편, △'선배님께 드리는 글'을 비롯한 6편의 편지글 △제주대학교 적십자회 조직표 △회원 주소록 등이 실려 있다.

『갈아보자』창간호 발간

민자당 제3집권 저지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대학교 운동본부(본부장 윤철수 무역4)에서는 지난 11월23일 『갈아보자』창간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민자당 제3집권 저지·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대학교 운동본부 사업계획', '탐방-대선일기의 현장' 등 다수의 글이 실려 있다.

계시판

발전기금 기탁

제주도 출신 기업인 김명식(경남 진주 대림화학 대표이사)씨가 지난 10월22일 우리학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했으며, 홍성락 자연과학대 학장(물리학과 교수)도 지난 11월23일 발전기금으로 1백만원을 기탁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금된 발전기금 총액은 6억4천6백62만4천6백95원이다.

기말고사 30일부터 6일간 실시
시험기간중 학생증 반드시 지참해야

'92학년도 제2학기 기말시험이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6일간 실시된다.

시험 응시자들은 시험기간중 학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하며 시험기간에는 시험에 필요한 필기도구 외에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에게는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조치된다.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사유서를 첨부한 시험연기원을 시험실시 직전까지 단과대학 교무과로 제출해야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실시된다.

한편, 지난 11월17일자 본지 1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조기종강해 기말시험을 치른 사례가 최소3~4과목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수업과에서는 이같은 보도에 따라 종강과 기말시험을 학사일정에 의거해 실시할

현장학생회 운영

총학생회(회장 윤철수 무역4)에서는 지난 11월18일부터 학생회관 1층에서 '현장 학생회'를 설치, 공개운영하고 있다. '현장 학생회'는 대선을 앞두고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펴파 동시에 폐쇄된 공간에서 벗어나 열린 공간을 창출하고, 학우들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학우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으로 기말고사가 끝나는 기간까지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학과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림

대학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감성을 부수고 이성을 깨우치는 신문!

-이것이 창간 38주년을 맞은 제대신문사가 지향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제대신문사 기자들은 우리시대와 대학사회의 진실을 밝히는 참일꾼이 되기 위해 어두운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제대신문사와 함께 새벽을 열어 갈 새식구를 찾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이 적격자입니다.

제40기 수습기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및 인원: 취재·사건·만화기자 0명
△제출할 서류: 본사가 정한 양식의 입사지원서 1통
△원서교부 및 접수: 11월28일(토)까지
법정대 중강당 2층 본사편집국
△전 형: 11월28일(토) 13시 본사편집국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필기시험 없음
△문의사항: 제대신문사 ☎54-2278~9

제대신문사

현암사 서울 미포구 아현3동 627호 5층 ☎365-5051~6, 팩스 313-2729



쓰러지는 기둥은 여럿이
막아낼 수 있듯이
쓰러지는 마음은 여러
책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 300만 독자의 심금을 울린 책, 완간된 지 10년이 지나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지칠 줄 모르는 조선시대 외적이야기 『장길산』 열권, 말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운 주제를 폭넓게 처럼 집어내서 재미있게 쓴 한국 현대 정치이야기 『명벽』 아홉권, 이 두 대하소설이 완간되어 장안에 술한 화제를 뿌리며 시대의 고전이 되어가는 지금, 숨겨진 역사 거장사건의 전모를 깨는 『도우』 여섯권이 완간되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루어 쓰러지는 마음 부둥켜안고 감동에 목마른 여러분을 흠뻑 적셔줄 것입니다.

황석영 張吉山 제1부/廣大(1,2권)·제2부/群像(3,4,5권)
제3부/蒼生(6,7,8권)·제4부/道義(9,10권)
전10권/각권 값 5,000원

고원정 명벽 제1부/우상의 땅(1,2,3권)·제2부/반향하는 혼(4,5,6권)
제3부/도 해의 신화(7,8,9권)·전9권/각권 값 4,200원

표성훈 王偶 제1부 혼으로 만든 인간(1,2권)·제2부 인형들의 전쟁(3,4권)
제3부 인형들의 합창(5,6권)·전9권/각권 값 4,200원

* 거창사전에 관한 국책 속기록과 피해상황표 및 여러 자료들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학술행사 부쩍 늘어 학문의 선진화·학술진흥 전기 마련

국제화시대에 발맞춘 학문의 선진화와 학술진흥을 위한 세미나가 우리학교 교수 및 국내외 저명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내·외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20일에 한국과학기술학회 주최 '92년 추계학술발표 및 특별강연회'가 열린 것을 비롯, 21일에는 제주도자연과학회 주최 '제주고대사의 계몽'이란 주제의 학술세미나가 열렸으며 지난 20~22일 3일간 외국어교육관 주관 '제27차 국제아메리카학회' 세미나가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하게 진행됐다.

또한 제주도연구회 제8차 전국 학술대회가 '제주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27~28일 양일간 열릴 예정이다.

아메리카·신화·역사...

한국아메리카학회(회장 차인석)가 주최하고 우리학교 외국어교육관(관장 양우진)과 영문학과(교수)가 주관한 '제27차 국제아메리카학회'가 '아메리카·신화·역사'를 주제로 지난 11월20일부터 11월22일까지 인문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5개국 유명인사 및 학자, 국

내학자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표 및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본교 유철인(사회학과)부교수가 "양공주의 삶에 있어서의 미국: 미군병사와 결혼한 한국 이민 여성들의 생활사"라는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다.

세미나의 분과별 발표자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학분과:비코프 로렌 이반(미시간대학교-디어본)의 "마틴루터의 전례의 허상", 오정화(이화여자대학교)교수의 "주홍글씨에서의 전주의 기능", 오이코지(관서 가쿠인 대학교)의 "넓고 넓은 세계를 다시 찾아서: 위니, 윈스 그리고 공화주의의 이념", 강희(건국대학교)교수의 "The Marble Faun의 여성: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이념과 가부장적 이상적 여성다움에 관한 호송의 비판적 견해", △인문, 사회과학분과:유철인(제주대학교)교수의 "양공주의 삶에 있어서의 미국: 미군병사와 결혼한 한국 이민 여성들의 생활사", 박경산(연세대학교)교수의 "미국에서의 이의집단 정치의 재평가: 의회투표에 관한 경제적 전망", 김형철(연세대학교)교수의 "세 미국 철학자의 정의의 꿈", 김연진(단국대학교)교수의 "인종적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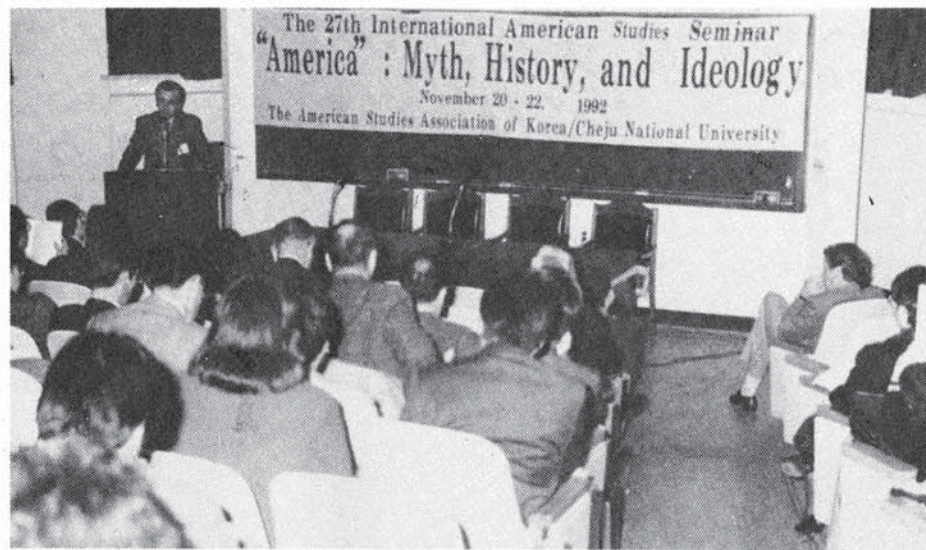
공: 신화와 현실", △일반발표:정상준(KAIST)교수의 "치녀지와 특수제도: 제퍼슨의 공화국에 관한 이념적 기원", 황해성(서강대학교)교수의 "설화문학사: 하이든 화이트".

제주의 인문·자연환경

'제주도 연구회 제8차 전국 학술대회'가 '제주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란 주제로 오는 11월27~28일 양일간 제주 로얄 호텔에서 열린다.

제주도연구회와 제민일보사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주의 자연, 환경, 그리고 인간'이란 기초발표를 필두로 제주인의 삶과 환경, 제주의 사회환경, 제주의 인간과 자연 등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27일 △(제주의 삶과 환경) 문학작품속에 비친 제주의 삶과 환경=발표:김영하(국문학학과)교수, 토론:현길인(한양대학교)교수, 제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도전·적용·초월의 메카니즘=발표:이창기(영남대학교)교수, 토론:장주근(제주도연구회)교수, △(제주의 사회환경) 1) 관광개발이 제주도민의 의식



△사진은 지난 11월20일부터 22일까지 인문대학세미나실에서 열렸던 아메리카학회 세미나 발표장면.

에 끼치는 영향=발표:최영민(한라전문대학교)교수, 토론:허향진(관광경영부교수), 국제정치 환경변화와 제주도=발표:고송문(제주전문대학교)교수, 강근형(국문교 부교수).

△28일 △(제주의 인간과 자연) 제주의 자연환경=발표:김상배(제주대학교)교수, 제주의 환경보전과 관리=발표:오홍식(동국대학교)교수, 토론:고동희(제주전문대학교)교수, △(제주의 사회환경) 2) 제주개발의 현황과 개발방향=발표:윤양수(국토개발연구원)교수, 토론:김덕남(제민일보 논설위원) △종합토론=제주의 인간과 환경 △일반연구발표=제주의 화산활동사(최순환·이동영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경제개발과 환경변화의 모형적 상호

관계:환경정책 사이클에 의한 해석(김옥중 건국대 환경과학연구소), 제주의 방언기원에 대하여(성낙수 한국국립대학교)교수, 지방자치의 역할에 관한 연구(김광식 국제정치경제연구소).

제주고대사 고고학적 연구

'제주 고대사의 계몽'이라는 주제의 제주도사 연구회(회장 김중업)제2회 학술심포지엄이 지난 11월21일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제주 고대사 고고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의 발표자와 발표주제는 다음과 같다.

△김봉옥(도문화재위원) = '탐라국에 관한 문헌 고찰' △박용후(제주도사연구회) = '제주도 고대사와 언어' △김인호(제주도사연구회) = '비교연구로 본 제주도 고대사'

폐기물소각처리기술...

환경연구소(소장 박형진) 과학

교육과(교수)가 주최하고 자연보존협회 제주도지부가 주관하는 '폐기물소각처리기술 워크숍'이 지난 11월19일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세대 폐기물 소각처리기술에 대한 연구논문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발표는제와 발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자공(한국과학기술원)박사=국내폐기물 소각처리기술의 동향

△배성근(창원대학교)박사=플라스티크폐기물의 유동층 열분해처리

△이기호(해양환경공학과)박사, 이계근(부산수산대학교)박사=폐기물소각과 대기오염

△김병태(주)진도 Eng.부사장=특정유해 폐기물의 유동층 소각 기술개발연구

△나삼주(주)백산 Eng.본부장=일반 폐기물 소각로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용희(주)현대중공업)부장=도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의 소각과 공해방지기술

동계방학 특강 실시 컴퓨터·어학강좌등 개설

'92학년도 동계 방학을 맞아 학업증진과 방학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각종 교양강좌가 실시된다.

전자계산소(소장 김영식 전자공 교수)에서는 오는 '93년 1월18일부터 29일까지, 2차 2월8일부터 19일까지 4주간 PC입문 및 MS-DOS, 로터스 1-2-3, 2차 워드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C 언어 등을 본관3층 전자계산소 PC실에서 교육하게 된다.

수강료는 각 강좌당 2만원이며 수강신청은 전자계산소 교육연구부로 '92년 12월28일부터 '93년 1월8일까지 2차 '93년 1월18일부터 29일까지 하면 된다.

또한 어학연구소(소장 고정환 영어영문 교수)에서도 아카데미 토플과 영어순해를 '93년 1월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수강료는 1만5천원이며 사범대 2층 어학연구소로 수강신청하면된다.

"교원임용고시 파행운영 이유는?"

사범대학생회 도교위에 공개질의서 보내

사범대학생회(회장 강원갑 국교4)에서는 지난 11월19일 사범대학 세미나실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14대 대선기간중 올바른 교원임용제도 제정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을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사범대학생회는 '93년 중등교원 임용고시의 위법사항과 현 임용고시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일반학우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시위 및 선전전 일정을 결정했다.

선전전의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23~26일:교문 앞 연좌시위(오전 8:30~9:30) △25일:도교육위원회 항의방문 △26일:상경투쟁 결의대회(참교유공장) △27~29일:상경투쟁, 학내 선전전 △12월1일:상경투쟁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 설명회

한편,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도교육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도교육위원회에 접수시켜 충분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개질의서'에서 사범대학생회는 △제주의 '93년 임용고시 모집자수는 15명으로 이것은 예년에 비해 감소된 수임뿐만 아니라, 실제, 제주대 사범대학에 관련된 인원은 4명에 불과한 데 대한 임용고시의 파행적 운영이유 △'91, '92년 교사임용후보자였던 임용고시 합격자가 5명이나 대기중인 이유 △교육부훈령 제477호인 초·중등학교 교원 적기 임용을 위한 업무처리조항에는 교원임용고시가 11월30일까지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교원임용고시가 12월20일에 시행되는 이유 △임용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사범대학 교수 및 학교교사, 사범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임용위원회를 통한 교원신규 임용을 실시하는 데 대한 의견과 계획 △초·중등학교의 부족교원수 확보 및 교원적체 해결방안과 계획 등에 대해 도교육위원회의 답변을 요구했다.

학생회간부 학생처장실 점거 농성 "봉사장학생축소 방침 철회" 요구



△지난 11월23일 학생처장실을 점거한 70여명의 학우들이 '봉사장학생 폐지 철회'등을 외치고 있다.

각 단체 학생회장으로 이루어진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학원안정화 대책위원회 △학생회와 학생회간부 학생처장실 점거 철회 △남치기로 이루어진 학칙개정안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지난 11월23일부터 학생처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1월20일 학생처장실에서 있었던 학교당국과 총학생회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행해진 것이다.

이와같은 점거사태는 지난 6월 지금까지 각 학생자치기구의

간부학우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오던 것을 '93년도 1학기부터 전면 폐지키로 결정한 데 대해 9월9일 봉사장학생문제를 추후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최근의 면담과정에서 장학금 수혜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어난 것이다.

총학생회는 봉사장학금에 대한 최종 임정표명 및 결의서를 통해 "학교당국은 지난 6월22일 장학위원회의 결정을 고수하면서 학생회 대표들에 대한 무마

책정도의 협의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는 학생회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처사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회측에서는 또한 이 결의서를 통해 △지난 6월22일 장학위원회에서 통과된 '교내장학생 우선 선발에 따른 제도개선'결정을 철회하고, 간부장학금 우선 선발제도를 유지·보장해야 하며 △단과대학간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장학금 지급수준을 유지해야 하나 중앙자치기구에 대해서는 현 장학금 지급수준의 절반까지 축소조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학교당국에서는 중앙자

총동창회 임시총회 28일개회 임원개선편제등 논의 위해

총동창회(회장 김장진 법학과 1회)에서는 오는 11월28일 오후 1시 법정대 중강당에서 임원개선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와같은 학교당국의 결정사항에 대해 학원안정화대책 거부 등의 요구사항과 더불어 △요구한 관철시켜 학생처장실 점거 △한 주가 지날때마다 확장 점거 △점거중에도 협상은 계속해 나갈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문두진(원예학과 교수) 학생처장은 총학생회의 학생처장실 점거농성 등과 관련해 "봉사장학금 문제는 서로의 충분한 이해가 있는 다음에 적정선에서의 조정작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점거농성이 확대·장기화 될 경우에는 학내 여론화시킨 후 학교 전 구성원의 판단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회후에는 새로 마련한 용담동 총동창회사무실에서 총동창회 및 장학재단원판식도 있을 예정이다.



○...때아닌 불장난
제법 쌀쌀해진 날씨가 학우들을 철부지로 만들고 있어
이제이런저런 저녁늦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휴위를 견디지 못해 여기 저기 불을 피워 학우들에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그 불의 따듯함은 느껴졌지만 더 큰 불(?)이 그대들을 기다린다는 사실은 왜 모릅시나요.
○...풍사중
지난 11월20일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한창 세미나가 진행중인 가운데 웬 잠음소리가 심하게 들리.
안에서 심각한 세미나가 진행중임에도 아랑곳없이 밖에서는 쿵쾅거리는 풍사가 진행돼 세미나 분위기를 흐리게 했다고

고질병, 고칠병

주제발표를 위해 참가했던 현대중공업 김도부장이 발표도중 주제는 하등관계가 없는 그룹대표자랑, 그룹자랑을 기회로 대대적으로 해대는 바람에 참석한 이들이 이맛살을 찡푸렸다.
충성스러운 부장님! 선전장과 세미나장 정도는 구분하시야죠.
○...신고의식과 시설예산.

학교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만 가지면 마음도 흐트, 물질도 충만할 수 있는데.
중앙도서관에서 신중중심 동물병원으로 걸어오다 보면, 흥건히 고여있는 물이 있는데 하수구가 터졌나나 어쩐지.
누구나 시설과에 고쳐달라고 신고하지도 않고 시설과는 몇달째 그렇게 방치돼 있는 것을 알고 있거나 한 건지 만 건지.
무관심이 학교를 버리고 있군요.
○...고질병, 고칠병!
아라인의 면학태도에 대해 혀를 찰 소리가 들리.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했건만 이말을 잘못 아는 지 강의실 벽에 재잘조잘 써 놓은 낙서들.
이제 기말시험 기간이 되면 더 지저분해 질 것이 우려되는데, 대입이 다가와 관계 부서에서 페인트칠을 한다고는 하나 이런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 되려는지.
고쳐지지 않는 이 고질병, 부끄러움을 가져야 될 게 아닐까해서 한마디.

투표율 배가를 위한 제대신문 기획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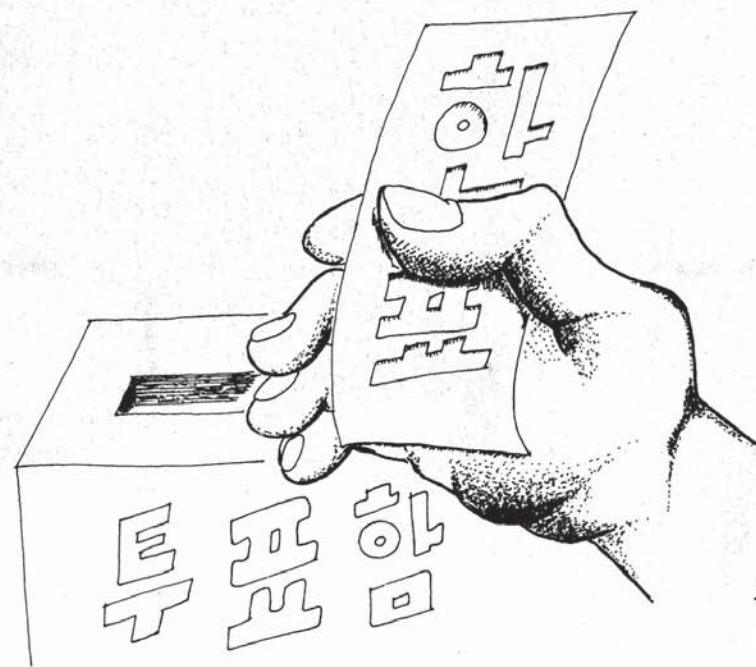
선거때마다 가장 낮은 20대 투표율 "이번엔 그 부끄러움을 꼭 청산합시다"

"주어진 한 표를 찢으시겠습니까?"

썩은 정치가 더럽다고 해서
백로가 되어서
들로 산으로 가실 작정입니까?
여러분들이 백로가 되길 원하더라도
오염의 조건이 그대로 있는 한
이 땅이 백로의 서식지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기권은
더럽다는 그 정치를
더욱 더럽히는 데 이바지할 따름입니다.

12월18일 금요일에는 꼭 투표장에서 만납시다.

한 표의 바른 행사는
우리들의 민주화 의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바로
우리 젊은이들을
소리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이야말로
썩은 정치를 한 단계 정화시키는
길입니다.



□ 제주도과 관련한 각당 후보의 대선공약 분석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실천 가능성 적어 공약에 대한 도민의 지속적 관심과 대안제시 필요

지역조사위원회에서는 14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대통령후보들의 지역공약을 학우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당선이후에 제주도의 미래를 보기 위하여 3당 및 현재 하내에서 학생조직으로 활동하는 민중후보 백기완 학생선거대책본부(이하 학선본)를 선정, 면담활동에 들어갔다. 면담은 각정당에서 제주도에 대한 공약이 발표된 후 민자, 민주, 국민당 도지부에 방문, 책임있는 지역 정책 입안자 혹은 지구당 책임자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민중후보의 공약검점을 위해서는 현재 대학내에 있는 학생선거대책본부에 면담을 요청하였다.

면담의 과정은 민주당의 경우 양승부 지구당위원장 및 실무진을 만나 지역현안 문제 및 민주당의 공약, 지역조사위원회의 입장을 대담형식으로 가졌고, 국민당의 경우 면담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회피, 결국 국민당 도지부를 방문하여 지구당 사무처장을 만나 중앙당이 작성한 제주공약집을 얻었다. 민자당 역시 면담요청을 회피하여 도지부를 찾았으나 책임자를 만나지 못해 중앙당이 작성한 제주도 공약집을 얻는데 그쳤다. 지역조사위원회에서는 좀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자당 제주도 선거대책위원장인 강보성 전의원과 만남을 갖기 위하여 시간약속을 하고 서귀포를 갔으나 강보성 전의원을 만나볼 수 없었다. 민중후보 백기완 학생선거대책본부장 및 실무자를 만나 지역공약에 대한 설명 및 문제점을 대담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실시여부는 3당의 실천의지이며 자제라고 전체, 그 판단은 독자에게 있다는 믿음아래, 3당 및 학선본으로부터 받은 공약자료집을 갖고 객관적 입장에서 비난이 아닌 정확한 비판을 수행하려는 자세로 공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형식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한계성을 갖는 분석이라고 인정하며 독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1. 제주 개발은 어떻게 진행됩니다나?

제주개발의 방향은 3당 모두 관광지향적 입장을 표명한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당의 경우 특별법에 대한 공약사항은 없다. 따라서, 민자당 공약안은 특별법을 기정 사실화함과 동시에 이것을 근거로 제주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화순항을 국제항으로 개발”, “제주공항을 국제공항 수준으로 대폭확장”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다.

민주당은 “제주도보존특별법”제정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날치기한 제주도 개발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다, “제주도 보존특별법은 제주도를 개발보다 보존이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될 것이며, 토지공개념에 의거한 중산간지역 대규모 토지 소유자(외지인)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 제주도 개발특별법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나 도민의 의견을 물어 실시한다.

국민당은, 특별법은 개정하겠다는 전제하에 개정의 방향은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개발방식의 변화, 개발이익환수 등과 관련한 내용의 개정을 주장했으며 학선본은 “특별법을 완전폐기하여 진보적 법률개정을 이룩하겠다”고 제안했다.

2)제주개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민자당 지역공약은 특별법을 인정, 주체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공약전반에 걸쳐 예산 책정 및 개발실행공약을 설정해 놓아 사실상 정부주도형의 하향식개발을 추진하고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공항을 국제공항수준으로 대폭확장”은 신공항 건설의 수장안으로서 신공항 건설은 거대한 자본이 투자의되는 사회간접시설로 제주신공항건설은 국가경제에 어려움을 준다. 또한 “화순항을 국제항으로”, “동서부 산업도로”등의 공약으로 민자당이 날치기통과한 제주도 특별법(4, 5조)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제주개발이 모두 완성되어 단지 집행되기만을 기다리는 인상을 강력하게 받았다. 이는 사실상 특별법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최초보고서 등에서 인용된 신공항 건설, 화순항, 서부산업 도로 등은 융역결과가 아닌 상충부에서 이미 결정되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는 사실상 특별법 폐기를 뜻하는 것이다. 특별법 1조 “주민주체에 의한 개발”은 단순히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선심성 법률로 드러난다.

민주당은 제주도보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도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소득, 주민 편의 형태로 추진되고 재정비되어져야 하며 관광객에게 좋은 시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광객의 호감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 뚜렷하게 개발과정에서 도민주체의 개발이라는 명문적 규정이 없다.

국민당은 지역주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개발방식을 주장한다. 그러나 주체를 제주도민으로 두고는 있지만, 대자본에 의한 개발의 저지 및 기존개발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등의 제제가 되고 있지 않으며 “각종 인-허가제도 간소화”는 대자본에게 오히려 유리한 환경을 삽입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민에게

민자당 공약(민자당 자료집)

1. 동서부 산업도로 국도화 및 확장 동부산업도로: 제주시-남원-서귀포 서부산업도로:제주시-중문-서귀포 2. 화순항을 국제항으로 개발 3. 수자원 보호 및 적절한 개발 4. 밀감을 정책적으로 보호 및 장려(비교:연차적으로 장려 및 육성) 5.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 6. 의과대학 신설(비교:제도개선) 7. 송악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관광개발 추진(제도 개선) 8. 해안관광도로 개설(비교:제도개선) 9. 제주지역 고등법원 지원 설치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비교:제도개선) 10. 4·3제주도민의 명예회복과 화합차원의 위령탑 건립 11. 제주공항을 국제공항 수준으로 대폭확장 12. 난정지역을 위한 중계시설 건립 13.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생활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완화

민주당 제주공약(지방지 92.11.19일 민주당 광고 참조)

1.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폐기하고 제주도민의 뜻에 맞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2. ‘4·3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3.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해외농수산물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4.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로 제주도민의 ‘내당지키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 환경과 개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관광개

는 불만해소형 소규모의 이익만이 보장될 따름이다. 학선본의 주장은 국가기간산업 및 제주기간산업을 국유화 혹은 공동소유하여 기존의 문제를 짧은 시간내에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유화의 비경제성은 역사의 과정에서 증명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점 분석이 없고, 또한 기간사업 및 투기대상의 몰수에 있어서 개념적용의 모호성 및 실행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의 해결방안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3) 제주도개발의 형식은 어떻게 진행됩니다나?

민자당이 제시한 “화순항을 국제항으로 개발하여 제주도를 육지, 일본, 중국을 연결하는 중심지로 개발”, “국제적 공항”, “송악산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관광개발추진”등의 내용을 볼때 1980년 구상에서 폐기된 자유지역지대의 논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며, 특별법최초보고서에서 지적되는 “대규모 거점개발방식”은 사실상 송악산지역과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 지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을 배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거점개발은 필연적으로 대규모자본이 유입되고, 지역주민이 소외되며 소득은 역외유출된다. 우리는 중문관광단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송악산개발은 지역주민의 주체 참여 및 의견수렴과 제주도민을 위한 장소로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제주도민의 내당지키

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6. 국도를 대폭지원하여 교통망을 확충하고 내집없는 섬들이 없도록 서민용 주택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 제주대학교를 국제적인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고 문화, 예술, 관광을 전담하는 대학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당 공약(자료집 개발지 정리)

1. 제주도 개발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농·어업, 축산업진흥을 진흥시키겠습니다. 3. 도내 제조업을 육성시키겠습니다. 4.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겠습니다. 5.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6.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설치 및 부속병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향락풍도 차단으로 문화의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중후보 공약(학선본 제공)

1. 제주도민을 제주 정치, 경제, 문화, 행정의 주인으로! 2. 지방자치제를 확대실시하겠습니다. 3. 농산물에 대한 이중국가제설로 농민생활보장 하겠습니다. 4. 대토지 소유자의 특혜, 투기토지 환수조치로 토지필요자에게 필요가격으로 매도하겠습니다. 5. 환경영향평가의 완전한 실현 및 오염시설강화 오염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6. 사회기반시설을 생산물유주로 정비하겠습니다. 7. 민중의 휴양지로 건설, 노동과정의 컴퓨터로 만들겠습니다. 8. 거점개발식 특혜, 투기, 대규모관광지에 대한 조로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및 국유화를 이루겠습니다.

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환경과 개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국제적 관광개발”을 주장하여 개발방식에 있어서 미래상이 미제시되어 있고 공약에서 보듯 추상적, 주관적 해석으로 나타난다.

국민당은 “기존의 ... 무리한 하향식 개발 지양...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개발방식...”, “국민 휴양지 개발”, “소규모 자본이용”등등 기존 개발문제점을 지양하는 올바른 개발 방향을 지적한다.

학선본은 “국제적 관광지로의 개발이 아닌 자연을 이용한 민중적 휴양지 조성”이라는 주장과 함께 “국제적 관광개발”을 주장하며 개발방식에 있어서 미래상이 미제시되어 있고 공약에서 보듯 추상적, 주관적 해석으로 나타난다.

국민당은 다양한 형태의 농수산업 개발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은 지역적 특화, 가공시설 현대화, 기계화, 공동구매, 유통구조개선 등을 들수 있다. 수산업의 경우 양식업 중심으로 동인력의 고용을 확대 시킨다” 학선본은 기존에 문제로 지적되는 하향식개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민중대표회의의건설, 소비협력적인 휴양지 건설이 아닌 민중휴양지와 제주도민의 고용인력창출을 주장하고 있다.

2. 농·수산업정책은 어떻게 실행하려 하십니까?

민자당은 농업분야에서 “...밀감을 쌀과 동등한 정책으로 보호, 장려

업생산물과는 달리 단기간 생산 및 다수의 공급자로 인하여 가격변동 즉 소득급변(폭락 등)을 내재하고 있다. 특화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없이 특화를 주장한다면 결국은 빈 공약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기계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 기계는 생산량을 증가시킬 뿐이며 생산량 증가는 곧 농민의 소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현재 농업생산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 감소현상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문제는 자본이다. 자본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괴리를 놓고 공약을 위해 농민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

3. 제주에서 문제로 나타나는 환경보호, 수자원(지하수)보호는 어떻게 공약하는지요?

환경관련 공약은 주로 지하수 관련 공약으로 각 당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3당은 UR등으로 인하여 생수시장이 개방되는 시점에서 국내 생수판매가 법률개정(현재 생수판매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으로 생수가 시판되는 시점에서도 제주도 생수를 유출 판매하는 행위는 수자원의 보호의 차원에서 금지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각 정당은 수자원보호를 위한 아이디어식 정책을 주장하며 실현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주개발은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환경오염을 증대해 왔음에도 국민당의 특장지적에서는 “외지인의 토지 소유비중이 높으며 소유자가 중산간지대에 집중되어 있고 각종 개발이 토지를 중심으로 진행됨”이란 주장이외에 중산간지역의 토지오염, 골포장 오염 등 관광시설물에 의한 대규모 오염에 대하여서는 국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4. 제주는 외지인 토지 소유가 많은데 정책적 대안은 없는지요?

민자당에서는 제주도의 토지문제에 대하여서는 문제점 및 공약을 주장하지 않는다. 단지 “송악산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관광개발 추진”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송악산은 일제시대에 강제 수용후 국유지로 변경되었고, 현재 송악산군사보호시설내에서 농사를 영위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미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로 제주도민의 ‘내당지키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란 주장 아래 “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고려하고 현재 유휴토지, 외지인 토지는 위락시설위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재고가 필요하며 또한 토지의 무차별한 관광개발을 저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기금지를 위한 대토지 소유자에 대한 설명화작업을 실시하겠다” 민주당은 원칙적 공약제시로 ‘내당지키기 운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대안이 없다. 그러나 소유자에 대한 설명화작업은 필요하며 또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공약으로 보인다.

국민당은 토지 소유자의 문제점을 특징으로 주장하나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이 없다. 과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학선본에서는 대토지 소유자의 특혜, 투기토지 환수조치로 토지실수요자에게 싼값에 임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5. 4·3항쟁 공약 있습니까?

민자당은 “4·3제주도민의 명예회복과 화합차원의 위령탑 건립”을 공약한다.

명예회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위령탑은 누구를 향한 위령탑인가? 아무런 근거없이 그저 시멘트덩어리를 세우는 것인가?

민주당은 4·3특별법 제정으로 4·3 진상규명을 행하며 진상규명은 도민의 상처를 아물게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화합의 차원에서 국가적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한다. 보상은 기간의 문제점으로 고려할 때 개인적 보상보다는 제주도민을 전체 대상으로한 대토지보상으로 4·3기념관, 위령탑 등 기타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4·3은 법률적, 역사적, 평화적 차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4·3은 진상규명이 돼있지 않다. 따라서 민주당은 4·3이라고만 칭하고 있다.

6. 제주대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대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각당은 의과대학 신설 등을 주장하나 사실상 선심성 공약으로 해석된다. 과연 그들은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가? 현재 제주대학교에서는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대학교의 발전에 열의를 갖는 3당은 대학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이 전혀없었다. 또한 직접적 관심을 표명하고 현재에 실천가능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제주대학교에 도움을 주었던 적도 없다.

7. 맺으며

지역공약은 정권장악시 지역에 대한 실권을 약속하는 것이다. 민자당은 특별법을 10여초만에 통과시키고 스스로 어기고 있다. 또한 보물섬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아래, 정권의 보물섬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민주당은 정책당당을 표명하나 구체적인 지원이 없다. 학선본은 민중 지향적 정책을 주장하는데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구체적 실천방법은 미약하다. 공약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며 아직도 제주도민이 스스로의 이익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은 험난하고 또한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며 각 정당은 자신들의 후보가 주장하는 제주공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고 단지 “당선 목적”만을 갖고 있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욱 청년학생 및 도민의 계속적 관심과 명확한 대안제시 그리고 끝없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역조사위원회)

우표원도 디자인 공모안내

체신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우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표원도를 공모한다.

1.대상우표

- 명칭 : 선장용 보통우표 2종(물을 살리자, 쓰레기를 줄이자)
- 발행일
 - 물을 살리자 : '93. 7. 1
 - 쓰레기를 줄이자 : '93. 11. 1
- 우표크기 : 가로22mm×세로19mm 또는 가로19mm×세로22mm
- 인쇄방식 및 색도 : 그라비아 6도색 이내

2.응모지역 : 대한민국 국민(개인에 한함)

3.디자인내용 및 규격

- 디자인 내용 : 공모대상 우표명칭에 적합한 것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표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것
- 디자인 크기 : 가로132mm×세로114mm 또는 가로114mm×세로132mm
- 용지지정 : 켄트지

4.작품접수

- 접수기간 : '93. 1. 21~1. 30(10일간)(우송할 경우 접수기간내 소인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우편번호 110-777 서울특별시 세종로 100번지 체신부 우정국 우표과
- 제출내용 : 응모원도 및 응모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이 기록된 작품설명서(A4용지 1매정도)

※응모방법 :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물로 송부

※등기우편물로 송부할때에는 우편표표면 왼쪽 뒷부분에 붉은 글씨로 “우표원도 디자인 응모작품”이라 기재

5.심사 : 체신부 우표심의위원회에서 심사

6.당선작 발표 및 시상

- 당선작 발표
 - 일 시 : '93. 2월중
 - 방 법 : 우체국 게시판에 게시 및 당선자 개인별 통지
- 시상
 - 일 시 : '93. 3월중
 - 시상내용 : 체신부장관 상장수여 및 부상금 지급
 - 최우수작(종당1작품) : 작품당 200만원
 - 우 수 작(종당1작품) : 작품당 100만원
 - 기 타(종당2작품) : 작품당 50만원

7.기타 참고사항

- 제출작품은 구겨지거나 접하지 않도록 주의
- 제출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품에 대한 모든권리는 체신부에 있음.
- 입상작을 우표도안으로 이용시 부분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문의 : 체신부 우정국 우표과(02-750-2241, 2245)

체 신 부

'92 Islands Summit 아시아 태평양 島嶼地域의 未來를 위한 國際學術세미나

—島嶼地域의 自主의 開發과 國際의 協力方案—

日時 : 1992. 11. 28 (土) - 11. 29 (日)	15:50-16:00	休 息
場 所 : 濟州市 KAL호텔 二層 會議室	16:00-17:00	指定討論
主 催 : 濟州地方自治研究會	討論者 :	한승조(고려대 교수) 문대만(제주신문사 논설위원)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高級管理者課程 院友會		강만생(한라일보사 논설위원) 부윤원(충청중영회 제주도 지회 부지회장) 장승호(비즈니스기술원 제주도협회 회장)
後 援 : 濟 州 道 大 韓 航 空	17:00-18:00	플로어 討論
	18:30-	宋升弼 제주지방자치연구회장 초청 리셉션
11월 29일(일)		
	09:30-10:50	主題發表 II
司 會 :	高志鎰(제주대 교수)	
第 4 主 題 :	홍콩의 개발실태 - Kwan-Yiu Wong(홍콩중문대 교수)	
第 5 主 題 :	팜의 개발실태 - Dirk A. Ballendorf (팜대 교수)	
休 息	10:50-11:00	
指定討論	11:00-11:40	
討論者 :	高문승(제주전문대 교수) 김인규(제주도 관광협회 상임부회장) 장영태(국회호텔 사장) 김상홍(제주시의회 의원)	
11:40-12:20	플로어 討論	
12:20-13:30	오찬	
13:30-15:30	主題發表 III	
司 會 :	趙文富(제주대 교수)	
第 6 主 題 :	環境保全과 開發 - 고동희(제주전문대 교수)	
第 7 主 題 :	外來資本과 住民의 利害關係 - 高富彦(제주대 교수)	
第 8 主 題 :	1차산업과 3차산업의 運動 - 金瓊玄(제주대 교수)	
第 9 主 題 :	島嶼間 協力方案 - 鄭鎮平(제주대 교수)	
休 息	15:30-15:40	
指定討論	15:40-16:20	
討論者 :	전성범(제민일보사 정책부장) 김승호(변호사, 제주지방자치연구회 상임위원) 김한옥(제주도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한성담(제주도의회 의원)	
16:20-17:20	플로어 討論	
17:20-18:00	綜合討論 및 結 論	
司 會 :	趙昌鉉(한양대 교수)	
討論者 :	참가자 전원	
18:30	韓昌榮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초청 만찬	

□「양공주」들의 삶과 「미국」-미군과 국제결혼한 한국여성의 생애사-

‘아메리카의 꿈’은 자발적 선택이었나

생존위반 불가피한 선택...늘 조국을 그리며 살아



○우리가 국제결혼에 성공한 기지촌 여성을 행운아로 생각하는 것도 ‘아메리카’라는 신화의 일부이다.

다음은 지난 11월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인문대 세미나실에서 「미국」·「신화」·「역사」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아메리카학회 「제27회 국제 미국학 학술대회」에서 영어로 발표된 것을 요약 번역한 것이다. (류은이 씀)

이 글에서는 국제결혼여성들의 삶에 과연 미국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미군과 국제결혼한 한국여성들의 대부분은 양공주 시절에 기지촌에서 미군을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여성들의 지난 삶 속에 비쳐진 미국을 살펴보면 양공주들의 삶에 미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여성인 순희, 애란, 빙고아줌마(모두 가명임)등의 생애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생애사연구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들은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생활경험과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삶 자체는 항상 현재에 이루어지지만,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는 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상호작용하고 있다. 다시말해, 우리는 과거의 경험 중에서 현재의 상황에 의미있는 것만을 간추려서 현재라는 시간에 이야기 한다. 따라서 세 사람의 국제결혼여성들의 현재적 삶을 알기 위해, 미국인 남편과 사는 것이 어떤가를 먼저 물어 보았다.

순희는 “어휴, 내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 솔직히 말하면 내 팔자가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난 살아야. 난 미국, 벌써 19년이 다 돼가도 그렇게 재미있는 줄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살아도 그리고 제가 원래 한국사람하고 살았어요. 결혼 해 갖고, 한국에 아들

들이 있잖아요”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순희의 생애 이야기에겐 숙명과 체념이 배어 있었다. 순희가 미국에 살면서 일한 경험을 이야기 할 때에는 외국에서 일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일이 힘들고, “내가 한국에서 내 나라에서 이렇게 고생하면 돈 모으고 명명거리며 산다”고 말했다.

빙고아줌마는 미국인 남편과 사는 게 어머니와 똑같으니, “그런 거를 물어요. 그래, 미국 남편하고 사는 건 어머니, 한국 남편하고 사는 건 어머니, 그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미국 남편하고 사는 건 한국 남편하고 사는 것과 다른 것 없어요. 남편은 남편 아니예요? 자식 낳고 사는 거”라고 대답하였다. 빙고아줌마는 “미국 와서 서방하고 새끼하고 사는 게 끝 아니야?”라고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려 했지만, 사실은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 국제결혼 여성들이 거의 3,000명이나 사는 테네시의 미군 기지 주변에서, 빙고아줌마는 이혼한 국제결혼여성인 장사하는 미군상대술집에서 아직도 기지촌 생활과 비슷하게 살고 있었다.

미군과 결혼하기 전에 한국 사람하고 이혼을 했던 애란은 순희나 빙고아줌마와는 다르게 미국인 남편을 높게 평가하며, “저의 경우는 한국 사람하고 살 때는 한국 남자의 그 특이한 자기주의, 그리고, 남자는 뭣도 해도 된다. 그렇지만, 여자는 인제 집안에서 살림하고 자식 키우는 거, 그런 식에서 살아왔는데, 외국 사람 만나니까 남녀평등이랄까. 저희 아파 경우에 는 너무 가정적이고, 이해심도 많고 그러니까, 제일 편하죠 뭐”라고 이야기 하였다.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 하는 사

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생애사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국제결혼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염두에 두고 이들 세 여성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줬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국사회에서 양공주나 국제결혼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반영한다고 본다.

우리가 양공주와 미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해방 후 미군의 진주와 그 후 계속된 주둔은 매춘이 늘어나는데 또한 ‘아메리카’라는 신화를 창조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군상대 율락여성을 ‘양공주’라고 부르는 것도 국제결혼에 성공한 기지촌 여성을 행운아로 생각하는 것도 ‘아메리카’라는 신화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빙고 아줌마는 기지촌에 홀려 들어가기 전에 양색시가 동생이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양공주들이 국제결혼을 갈망하는 것은 강석경의 소설에도 나타나듯이 미군과의 결혼만이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기지촌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메리카’가 상징하는 부와 행복을 무조건 좇아서 가는 것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 여성들은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미군과 결혼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순희는 자기의

남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서 미군과 동거를 시작했고,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면서 헤어진 두 아들을 찾기 위해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에 왔다고 한다. 빙고아줌마는 결혼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돈을 받기 위해서 미군의 청혼을 받아 들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애란은 내상 난 아들을 위해 자기 하나 희생하는 기분으로 미군과 결혼했다고 한다. 한국인 남편하고 이혼한 후 아들이 아버지하고 계속해서 살았는데, 자기 아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애란은 지금의 미국인 남편은 한국말로 잘 하고 한국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 아들을 아버지한테서 찾아 같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결국 세 여성들 모두 미군과의 결혼을 결정할 때 ‘아메리카의 꿈’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 하지 않고, 미국에 오기 전의 한국생활을 주로 이야기 하였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미군과 결혼하게 된 과정이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점을 한국 사람인 나한테 이해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자기들만의 지역사회에서 언니-동생 하면서 서로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

과학에세이

감귤의 착색과 에틸렌



식물체에는 몇가지 식물 호르몬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옥신과 키네티, 지베렐린은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며, 앱시스산과 에틸렌은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 에틸렌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생리학자인 Neljubow는 1901년 비바람이 몹시 부는 날에 거리를 비추는 가스등이 꺼져버린 후에, 여기에서 새어나오는 가스에 의해 거리의 가로수 잎이 여름철에 모두 떨어져 버린 결과를 연구하여 가스등을 켜게하는 에틸렌이 어두운 곳에서 자라게 한 어린 완두의 생장을 억제하고 줄기팽창을 크게하여 줄기를 굵어지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1910년에는 서인도제도에는 영국연방의 Jamaica정부는 자국의 과일을 수출할 때 같은 선박내에 오렌지와 바나나를 같이 실지 못하도록 하는 홍보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는 어떤 기체가 발생하여 바나나가 목적으로 도착하기 전에 너무 익어서 팔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 원인이 밝혀졌는데 바나나와 오렌지를 같이 선적한 경우에, 오렌지가 익어

가면서 내는 에틸렌이 과일이 익히기 때문에 더 빨리 익히게 상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과일들은 익어 가면서 에틸렌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과일의 성숙과, 잎의 탈리, 뿌리의 생장억제 또는 꽃의 색을 바래게하는 등의 작용을 한다. 한편 인체에 대한 작용으로 는 농도가 높은 경우에 사람을 질식사시키거나 심하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의 해로운 효과가 알려져 있다. 무색의 휘발성 가스로서 분자량이 약28인 이것은 또한 철재의 절단이나 용접에 사용되는 데, 이 경우는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에서 생기는 아세틸렌가스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에틸렌이다. 최근에 극소수의 감귤 중간상인들이 이렇게 발생시킨 에틸렌가스를 이용하여 익지 않은 감귤을 착색시켜 잘 익은 감귤과 외관상으로 구별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도둑으로 반출하는 것이 문제화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감귤의 맛은 껍질 내부에 있는 유기산들이 당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입맛을 잃게 하고 따라서 구매의욕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외에

도 에틸렌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밀폐된 장소에서 착색처리를 하는 과정에 폭발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으며 실제로 폭발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화재를 일으킨 경우도 알려져 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상품명으로 Ethrel을 개발하여 상품화 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ethphon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것은 토마토, 사과, 딸기 및 포도 등의 성숙촉진제로 사용되고 있다. 결만 노랑게 착색시킨 감귤은 사실 익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착색판매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를 하여 감귤을 판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착색하는 경우는 착색후에 내부의 과일주스의 당도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판매를 하는 것이 제주감귤의 좋은 인상을 유지하는 길이고, 중간상인들에게 신용과 상품가치에 대한 신뢰의 이익을 제공하는 길이며, 제주감귤 농가의 농민들의 값어치 노동의 대가에 보답하는 길이다.

정충덕

과학교육과 부교수

알립니다.

조기종강 보도와 관련한 본사 입장

제대신문 11월17일자 1면 조기종강관련기사에서 자연대대학과목의 전공과목이 이미 기말시험을 치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것은 자연대 대학과목 수시교사 형식으로 기말시험을 2회 치르는 것을 본사가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연대 관계자 여러분에게 물의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교양과목의 경우 자연대교과목이 아니라, 인문대등 다른 대학에서도 보도 당시(학사일정상의 시험기간 3주전)까지 3~4개 과목이 기말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학사일정상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로 돼있는 시험기간 이전에 시험을 치르는 과목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사가 조기종강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것은 그같은 조기종강과 시험이 대학내 면학분위 조성에 크게 역행하는 처사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성의없는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이수학점이 3학점인 어떤 과목의 경우는 3일로 분산돼 있는 강의를 하루에 3시간씩 한다고 통합시켜 놓고, 1시간 정도만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 수업시간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강의는 우리대학을 저급한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학사일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휴강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풍토가 정착돼야만 지방대로서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면서 학교가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제대신문사 -

학술탐방

제주교육사회연 주최 ‘교육문제 세미나’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의 영원한 민족화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 미리 북한의 교육체제와 교육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화합의 기초를 다지는 일로써 매우 중요할뿐 아니라, 구미 선진국의 교육체제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교육현실의 모순점과 교육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11월21일 신제주 삼성생명빌딩 5층 회의실에서는 제주교육사회연구원(원장 이순형, 교직과 교수)주최로 ‘교육문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상철(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장)교수의 ‘북한의 학교교육과정과 충남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와 있는 EDEBERN(미국, South Dakota State Univ.)교수의 ‘미국

의 초·중등·학교와 학생생활’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첫 강연에 나선 강교수는 “북한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예술, 특히 음악 분야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지적, “우리 교육의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북한보다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한의 동화를 비교·제시하면서 “남북한의 화합을 위해서는 북한을 사실 그대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강연에 나선 EDEBERN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학교행정을 비교하며 “미국은 연합정부보다는 주정부가 주정

권장된다”면서 미국학교교육의 선진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작성한 종합적인 학습자료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국경교과서를 사용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은 미국의 교육방식은 우리가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EDEBERN교수는 학교교육방법과 교수방법을 연관시켜 “학교 건물의 건축에서조차 교수과정을 개선시키고 학습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도록 그 설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많은 현대식 건물들이 미디어 센터(media center)·도서관, 자료실, 영화관, VTR등의 학습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 등 넓고 넓은 개방식의 교실들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매우 효과

적이다”라면서 교육에서의 기자재 시설구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학교 건물들이 대부분 현대식을 지향하면서도 지상 3~4층 정도로 건축되고 있다는 걸 감안할 때, 학교건축방법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EDEBERN교수는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고교 졸업자 중 25%만이 대학에 진학하는 점을 가리켜 “한국의 교육체제는 75%의 창조인력을 낭비시키고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이번 ‘교육문제 세미나’는 우리 지방에서 개최된 교육과 관련한 세미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으나, 주제의 중요도에 비해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지적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학교교육과정에 대해 세미나를 한다기에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준비도 미흡하고 새롭거나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어 실망이 크다”며 아쉬워했다. 또한 방청자 중 몇몇은 눈을 감고 명상(?)하는 모습도 보여서 강교수의 준비가 미흡한 점에 앞서 청취자의 태도 역시, 진지한 면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세미나가 참석자들에게 그다지 흡족함을 주지는 못했지만, 이런 세미나가 두번, 세번 반복해서 개최되고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한 모순점을 고민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뒤따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김현철기자]

전자계산소 이용 안내

전자계산소에서는 '93학년도 입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 및 단말기 사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다 음-

가. 출입통제기간: '92. 11. 23-합격자 발표일까지 나. 단말기 사용제한

-기간: '92. 12. 18-합격자 발표일까지

-대상: 각 단과대학 행정실, 부속실, 학생과, 총무과, 경리과, 수업과, 교무과

전자계산소장

번역

“번역”하면 “프로랭스”입니다.

어떤 언어라도 번역 가능합니다.

전세계 어떤 언어라도 완벽하게 번역하며 특히 국어를 외국어로, 또는 외국어를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는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프로랭스는 전세계에 걸쳐 Network를 갖추고 있으며 수많은 해외의 고객으로 부터도 품질과 서비스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라도 번역 가능합니다.

전자, 통신, 컴퓨터, 기계, 전기, 화학, 의학, 약학, 건축, 토목, 원자력, 경영, 경제 등 각 분야의 자료뿐만 아니라 무역서신, 계약서, 규정, 정관, 사업계획서, 규격집, 시방서, 기술매뉴얼 등 어떤 분야의 어떤 내용도 완벽하게 번역해 드립니다.

특히 컴퓨터 Software의 한글화 작업은 File의 번역뿐만 아니라 File의 Compile 및 Program Functionality Test 까지 Turn-key Base로 처리해 드립니다.

어떤 서비스라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역 및 번역사, PC오퍼레이터 파견뿐만 아니라 전자출판 시스템에 의한 매뉴얼 인쇄제작까지 패키지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문 및 소책자는 워드프로시스템후 레이저로 출력해 드립니다.



PROLANGS

제주지사: (제주) ☎ (064) 48-2301

Fax (064) 48-2302

컴퓨터

제116기 개강 12월 1일(화) 12월 학기수강신청중 / (공휴일도함수)

● 제16차 교육실습기재 컴퓨터 도입, 386이벤트(UNIX시스템) 설치 최신 SOFTWARE 2000여종보유 실습실 공유일도 개방

1992년도 정보처리기사·기능사 시험안내(하반기) 자료제공

○ 전문전산인 양성교육 ○ 국가검정대비 ○ 유능한강사진 ○ 문교부장관 표창수상 ○ 한국과학기술인시스템 공학센터 ○ 서울중앙전신학회와 지역협력 ○ 전산교육수료자 ○ 기사급 다년간 강의경력 ○ 교육부장관 표창 ○ 제주지역 정보처리기사 ○ 서울중앙전신학회 강사연수 수료자 ○ 합격자중 절대다수 본원출신 ○ 대학원 전공자

○ 사별강자 개강 ○ 통계 및 수치해석 ○ 데이터베이스 ○ 각종 유틸리티모음 특강 ○ 하나데이터베이스 개강

○ 프로그래밍 정규교육과정 ○ EDP스펙트럼 ○ FORTRAN-1 ○ FORTRAN-2 ○ COBOL-1 ○ COBOL-2 ○ ASSEMBLY ○ O-J-T(시스템분석 및 설계 실무)

○ 프로그래밍전문교육과정 ○ G/WBASIC-1 ○ G/WBASIC-2 ○ 파스칼 ○ C언어-1, 2, 3

○ 프로그래밍 특강교육과정 ○ 기사·2급 필기·실기 대비 ○ 기능사·2급 필기·실기 대비 ○ UNIX ○ AUTO CAD ○ 마이크로소프트 워드프로세서 필기·실기 대비

○ 사무자동화(OA) 교육과정 ○ MS-DOS ○ 워드프로세서 ○ 로터스 및 심포니 ○ dBASE III ○ 미이컴(BASIC) 교육과정 ○ 국·고(초·중·고급, 특별) ○ 교양영어 ○ 중·고·고급

○ 금성 소프트웨어주식회사 교육지정 (재학원)

컴퓨터교육의 명문

안양컴퓨터학원

주최 중앙방송사 입구 건너편 ☎ 52-179-30 22 FAX 52-1751

대출도서반납안내

'93년도 새학기부터 우리대학 도서관에서는 소장자료 운용을 이용과 여러분이 자유로운 자료접근과 필요요하는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자료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신 교직원, 학생 여러분께서는 다음의 기한까지 빠짐없이 대출도서를 반납하여 주시어 우리대학 도서관 모든 장서가 바코드로 되어 도서관, 반납처리의 전산화 개개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내대상: 대출도서 미반납 학생, 교직원

2. 반납기한: 1992년 11월 28일(토)까지

3. 기 타: 대출도서 반납에 대한 미반납사유

가 있을 때는 도서관 열람과 대출

대(Tel. 2216, 2217)로 문의하시면

적절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도서관장

• 애월읍 하귀리 237번지 ☎ 99-2510~2. FAX 2512

민주정부수립 반드시 실현하자 “단결만이 살길이고 분열은 죽음”

몇몇 대학의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기를 희망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이제 국민들은 정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4천만 국민은 수없는 대중항쟁의 과정에서 올바른 비판능력을 견지하게 되었고, 더이상 정권의 시니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낮은 추수수매가와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은 곤두박질하고, 약법과 총액임금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투쟁도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폭등과 경제파탄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분출이 바로 농민 시위, 노조파업투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이제 더는 민자당을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선전전에 참여하면서 빠져나간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건네주며 열심히 설명하는 우리 학우에게 사장의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러 왔습니다. “학생들의 얘기가 백번 맞는 얘기가.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 여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가지 공통적인 것은 또 다시 민자당 김영삼에게 정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민자당을 누르고 대선에 이길려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정서에 맞게 어떻게 같이 정권교체투쟁을 일궈낼 것인가를,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87년에도 이러한 희망은 지체했습니다. 하지만 ‘분열’이란 해악적 요소 때문에 쓰러진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대선에서는 다행히도 국민의 여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전국연합의 단일한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민자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단결로서 범민주단일후보를 실현시켜 민주정부수립을 이뤄내는 것, 바로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단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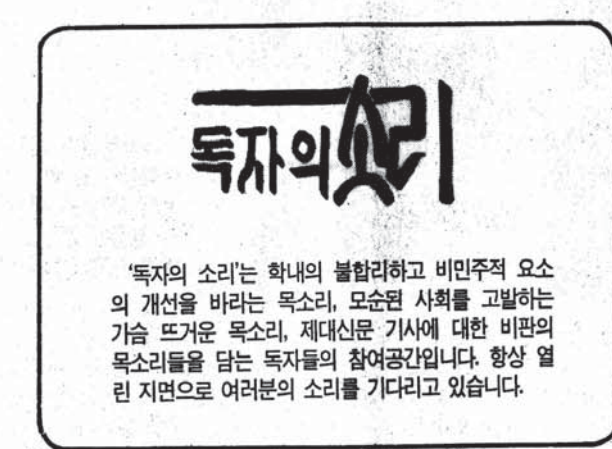
전국연합의 고문인 김성 백기완선생은 이러한 국민의 대의를 위해 파악하고 후보사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신문들을 보면 전국교사대회, 노동자대회에서의 결의사항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현충리의 성명발표문을 보더라도 독자후보는 조적의 단결에 위배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역시 독자후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민중이 원해서”라는 문구로 절호의 기회를 차단하는 분열적

민중대통령 추대이유 바로 알라 무조건적 단결 요구는 안될 말

지난 제대신문에 독자의 소리를 보면서 착잡함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있지 못하는 학우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애정어린 비판임을 전제하면서 제안합니다.

먼저 강성진 학우의 글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첫째, “민중대통령을 추대하는 것은 민자당계집권을 전제한 패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배주의는 민주정부수립이 아니라 범민주단일후보를 외치고 있는 진영입니다. 보수3당 중 누가 집권을 하든 우리 민중의 열원은 근본적인 자유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보수정당의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재벌들을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지만 민중을 위한 공약은 어느정도 구체적인가? 단지 선언으로만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이상은 아니라고



볼입니다. 당선만 되고 보자는 보수정당의 대동명병 증세입니다.

그랬을 때 민주정연은 독자적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하고 세사 회 건설에 주체로 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민중대통령 추대는 단결을 저해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을 왜곡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전국연합 상층부는 범민주단일후보안을 결의했지만 지도단위의 대중들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민중후보 대선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의 건설에 구체적인 실현방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물어보면 사회는 깨끗하고 합니다. 우리는 그 깨끗한 사회를 치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허무주의와 패배적인 사고가 팽배한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집니다.

두번째는 위의 사항을 집행할 지도의 구체적 건설입니다.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것으로 구체화시켜 낼 수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7월 하순 투표를 받든 사,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진보정당 건설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확보하기의 정도에 따라 국회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 당선가능한 야당후보를 밀어야 한다가 아니라 97년도에 민중정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민중적 관점을 92년부터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김선자 법학과]

교재

본지 제462호 지면중 『장간행』 내용인 ‘수저 2천개 분실’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식기의 훼손·분실을 포함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종합발전계획과 교과과정 개편안을 보고 무엇이 대학 발전을 위한 길인가

무엇이 대학발전을 위한 길인가.

—종합발전계획과 교과과정 개편안을 보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태가 변한다 해도 이 세상에는 의연히 변치 않고 남아 있어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있기 마련이다. 대학의 이념도 그 중의 하나이다. 면면히 생명력을 가지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야 할 대학의 이념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곧 사회·역사발전의 기간이 되고 중추가 될 인간과 학문의 완성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발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시대에 따른 중세 이래 추구되어 왔던 대학의 보편적 이념이 나날이 변질되거나 퇴색되고 있음을 볼때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우려되는 바 크다. 대학이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인간행위를 길러내는 지성의 전당이 되지 못하고 기능적인 지식인을 양산하는 전문기관으로 만족한다면 대학이 사실효원이나 직업인 양성과 다를 바 무엇이겠는가. 대학이 대학이 존재해야 할 당위성과 필연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대학이 대학답지기 위해서는 대학이 갖춰야 할 품격과 위상이 있어야 한다. 대학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변화의 조류에 영향을 받기만 하는 대학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대학의 보편적 이념을 깨닫지 못함에 따른 소치라 여겨진다. 그것은 곧 대학이 스스로의 품격을 저버리고 위상을 낮추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논란 끝에 확정된 우리 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안’이나 새 교과과정개편안을 보면 과연 우리대학이 표방하고 있는 21세기기를 대비한 창조적 지성의 요람으로서의 온전한 발전계획이고 교과과정의 필수 있는 것인가. 대학의 위상을 급할 수 없.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해 볼때 과연 진정한 대학발전의 길을 모색해 보자.

먼저 종합발전계획안을 보면 2천11년까지 3개 단계, 17개 학과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때 이공·자연계열이 인문·사회계열(96년 이후)에 앞서 있다. 첨단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우리대학이 표방하고 있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생각할때, 모든 대학이 무비판적, 획일적으로 국가의 대학정책에 순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실험적·창조적 학과 교수 충원 등에 대한 상대적인 조건의 열악한 속에서 이공·자연계열 학과의 충원을 서두르는 일은 대학발전이 아니라 대학의 질적 퇴행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총체적인 학문의 발전, 나아가 대학의 발전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균형적인 발전 속에서 담보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대학의 성장은 인문·사회과학의 희생에서 이루어진 기형적인 성장이었다. 정신적 가치의 척박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지간의 한국 경제성장이나 물질적 부의 축적과정이 결국 내실없는 경제발전을 위촉시켰고, 전반적인 사회의 민주화를 저해시켰으며 급기야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해피한 사회적 질병을 배태하지 않았는가.

학과와 대학 신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따라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계획에 나타나 있는바, 관광개발학과나 경영정보학과, 의상학과 등이 철학과나 인류학등 인문계열 학과에 우선하여 신설한다는 근거를 굳이 따지자면 지역특수성과 학문의 실용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종합발전계획이 대학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라면 어떻게 보편성과 필연성을 사상하고 객관적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지 신중히 재고해 볼 일이다.

97년도 신설 예정인 생활과학대학(대학명정도 재고해 봐야겠지만)도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도내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인력을 감안하여 이러한 단과대학을 신설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 있어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학문의 보편성과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사회과학대학의 신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학과와 세분화도 문제이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대학의 학부과정은 학문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다. 전공의 세분은 학부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학문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교조적인 원칙론에만 입각하여 유사학과의 중첩을 서두르는 것 보다는 기존학과에서 여건을 개선해 학문의 기초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규모가 큰 육지의 많은 대학에서 80년대 이후 첨단과학의 육성이라는 구호아래 전공학과를 세분함에 따른 누적인 시행착오로 현재 유사학과를 통합하고 있는 추세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다음으로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자. 개편된 교과과정의 골격은 교양과 전공에 있어 공히 필수과목을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목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데 있다. 물론 원칙에는 아무 하자가 없. 다만 얼마나 우리의 교육현장이

들이 이 원칙론에는 공감을 표시할 것이다. 그러나 개편된 세부 교과과정의 내용을 약간의 문제의식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 대학교의 현실적인 여건이나 실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원칙론에만 급급하여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국립대학의 교과과정 안에서 그럴듯한 부분만을 골라 나열해 놓은 듯한 인상을 지을 수 없다.

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대학교에는 다른 대학에 비해 철학과나 고고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정치학과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과가 한둘이 아니고 이에따른 교수충원도 태부족한 상태이다. 과연 이래가지고도 제 주체학과가 국립종합대학임을 댕댕이 내세울 수 있을런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정도로 말이다. 이런 상태에서 8개 영역에 걸쳐 80여 교과목으로 나뉘어진 교양과목에 대해 학생들의 지적 요구에 부응할 충실하고도 원활한 강의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런지는 회의적이다. 육지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대학교의 지역적 여건을 볼 때, 우리대학에 전

공교수가 없는 특정한 교과목에 대해 외래강사를 초빙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한번이라도 고려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이에 대한 여파로 몇몇 특정 교과목에 수강학생이 편중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교과목의 폐강사태가 속출하지 않는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교양필수과목의 지정에 있어, 또 다시 ‘파목이거주의’로 오해되고 호도될 가능성이 있기에 특정 교과목을 놓고 그 정당성의 여부를 따지지는 않겠다. 다만 철학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조차 그치고자 한다.

인문대학의 경우, 학과장회의에서 결정된 원인이 본부 심의과정에서 반복되었다 한다.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는 학과장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 어떻게 본부 심의에서 묵살·변복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 대학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이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의, 결정함에 있어 단 한번이라도 공청회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전체 학생이나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과학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논의과정에서 교육이론을 전공한 교수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이번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안과 교과과정개편안의 전체적 특성은 한마디로, 인문·사회계열에 대해 자연계열의 우선성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에의 충실한 부응과 지역적 특수성(관광·해양자원을 고려한) 및 학문적 실용성의 고. 양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그 어디에도 대학의 본질적 이념과 학문의 보편성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국가시책과 지역적 특수성 및 학문의 실용성을 내세워서 대학과 학문의 고유한 가치와 이념을 훼손시키도 좋은지 알 수 없다.

실용주의는 가치와 진리의 다원성을 주장하는 철학적 상대주의의 일부이다. 해방이후 물적·한 교육관료·학자들에 의해서 무비판적, 무반성적으로 수용된 미국의 실용주의적 교육관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의 교육현장을 오염시켜 왔는가를 다시금 되돌아 보자.

사회현황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실천이 요구되고, 결국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 지식, 새로운 실천에 응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의 획득은 더욱더 불가피해진다. 보편적 의미, 보편적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해서 높은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인 셈이다.

나무는 보되 눈은 보지 못한 것은 우화처럼 눈앞의 실용성과 특수성에 매몰되어 정작 울곧고 순수하게 유지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들—대학의 본질적 이념의 주체학과가 국립종합대학임을 댕댕이 내세울 수 있을런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정도로 말이다. 이런 상태에서 8개 영역에 걸쳐 80여 교과목으로 나뉘어진 교양과목에 대해 학생들의 지적 요구에 부응할 충실하고도 원활한 강의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런지는 회의적이다. 육지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대학교의 지역적 여건을 볼 때, 우리대학에 전

김현돈

독자독문학과 전임강사

교양과목 경시풍조 없어야 교수·학우 공동으로 노력해야 정착가능

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전공 아닌 교양과목도 하나쯤은 ‘빠삭하게’ 잡아보리라 마음 먹으며, ‘지적 욕구’에 눈을 빛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교양과목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그럭저럭’에 가까우며, 눈빛 또한 많이 시들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이 단지 나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어떤 교양 과목의 개강일에 1학년 학생들만 나온 것을 보면, 담양교수가 “1학년 학생은 선배에게 이런저런 배우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이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고학년이 필수교양과목에 대한 기대감과 공부의욕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의 원인은 무엇일까? “간접적 원인”도 여러가지가 있었지만(전공과목의 비중이 높아짐, 취업준비, 관심분야가 정해짐 등), 여기서는 교양과목 자체로 인한 ‘직접적원인’을 생각해 보자.

첫째로, 교양과목 자체의 내용이 수강생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교수가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자극하고,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려는 ‘열성’내지는 ‘진지’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매학기마다 100명 이상이 수강하는 예능계통의 교양과목이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더구나 3시간짜리 과목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1시간만 강의하는 경우도 여럿 있어, 강의의 질과 학생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두번째로는 학생들의 무책임한 ‘순응적 분위기’를 들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부담없는 학점 잘 주는 교양과목에는 매학기 100명이 넘는 학생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3시간짜리 강의를 1시간만 하자는 제의

에도, 불평없이 ‘동의’, 나아가서는 ‘환호’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나쁘다는 건 알지만 부담없는 강의의 큰 유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대신문에 ‘연재되는 하종개학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긴 하지만 좀처럼 학풍은 개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두가지 원인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해결 또한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교수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적 자극을 주어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은 자신의 안일과 나태함을 벗어던져야 한다. 대학에서 너무나도 익숙해진 ‘투쟁’이란 단어를, 이제는(우리의 성장을 위하여)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조은형 사회학과]

독자의 소리에 비친 한 학기 2학기들어 대선문제 부각 두드러져 식당·도서관등 복지개선 요구도 많아

한학기 동안 본사의 ‘독자의 소리’를 통해 들어온 독자투고는 총31편이다. 먼저 그 내용들을 △학내복지에 관한 내용 6건, △학생회활동에 관한 내용 6건, △대선에 관한 내용 5건, △대선에 관한 내용 6건, △언론·정세에 관한 내용 4건, △기타내용 4건 등 크게 6가지로 나눠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이번학기에 주목할 것은 시기적으로 12월에 있을 대선에 관한 독자투고가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학내 복지문제에 관한 내용으로는 ‘도서관 열람실 좌석독점 금지에 앞서 물품보관소 설치’, ‘식당점원 근로조건 개선’, ‘신생학과 각종지원 미비’, ‘정문주변 사고위험 상존’, ‘방학 중 아학당 수강을 하고 나서’ 등이 있다.

‘도서관 열람실 좌석독점 금지에 앞서 물품보관소 설치’를

시행기간에 특히 문제되고 있는 학생들의 열람실 좌석독점을 도서관에서 금지한 데 대해,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물품보관소를 설치해 줄 것을 도서관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도서관의 답변은 타대학에도 열람실 이용 학생들을 위한 물품보관소가 없다는 이유와 현실적인 문제점, 구체적으로는 공간부족을 이유로 들어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대신, 93년부터 개각식으로 전환되는 서고에 물품보관소를 기존보다 확대 설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독자는 서강대학을 비롯한 타대학에서는 이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투고를 해서 성의있는 행정을 펼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식당점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식당직원들의 어려운 근로환경을 이야기하며 식당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줄 것을 학교측에 부탁하고 있다.

‘신생학과 각종지원 미비’는 신설된 학과에 대한 학교측의 지원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학교당이 원천적으로 부족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

‘정문주변 사고위험 상존’은 항상 문제가 제기됐던 혼잡한 교문앞에 관한 내용으로 교문에서 차량과도로로 일어났던 시나리오와 학생의 충돌사고를 예로 들며, 정문앞에 대한 학교측의 관심을 촉구하고 교내에서 차량들의 교통질서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이후 정문수위실에서는 11월1일부터 정문앞에서 차량의 과속단속과 지정된 장소에 정차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어 이전보다는 한결 나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교당국의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회 활동에 관한 내용 각종 학생회 활동에 관한 투고로는 ‘휴강을 위한 축제폐선 안배’, ‘학생회 행사 강의 없는

시간대 이용해야’, ‘선거통해 학생회 개혁해야’, ‘여성학강좌에 바란다’, ‘총운영위 대선방침 학우의견 수렴했나’ 등이 있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휴강을 위한 축제폐선 안배’는 언제부터가 축제문화가 높기 위한 축제가 인식되어 있다고 지적, 축제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분산 실시되어 온 단과대학 등을 한꺼번에 모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면학분위 조성이나 학생회 활동 강화를 위해서도 이같은 의견은 반드시 존중돼야 할 것이다.

‘학생회행사 강의 없는 시간대 이용해야’는 학생회행사에 학우들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를 강의가 많은 시간대에 행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학우들을 좀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의가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행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학강좌에 바란다’는 여성학강좌를 개편하면서 형식면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외식면에 좀더 신경 써주기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총운영위 대선방침 학우의견 수렴했나’는 총운영위가 우리학교 대선방침을 정함에 있어 학우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총운영위의 대선방침 결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면 대선투쟁 방침이 통일되지 못한 한가지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적이었다고 본다.

의식개혁에 관한 내용

‘강의방식 불평 이전에 자기책임에충실하자’학내 공공 기물에 애정을 갖자’ 등이다. 그 내용을 보면, ‘강의방식 불평 이전에 자기책임에 충실하자’는 교수들의 강의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기 이전에 학생으로서 강의준비나 강의시간에 충실한가를 묻고, 먼저 학생의 책임에 충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학내 공공기물에 애정을 갖자’는 대학의 주인은 수구인가를 되돌아보며, 대학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공공기물을 아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에 관한 내용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역시 대선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투고됐다. 그 내용들은 ‘민중후보를 추대하는 이유’, ‘쫓겨진 민중후보지지 대자보를 보고’, ‘불태워

진 대자보를 보며’, ‘민중후보 추대에 대한 반론’, ‘대선에서 유권자로서의 올바른 의지를 보이자’ 등이다.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2월18일 있는 대선을 앞두고 민중후보지지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과 범민주단일후보를 지지하는 측의 내용이 나와 있으며, 민중후보를 지지하는 측의 대자보를 범민주후보를 지지하는 측이 켜고, 불태운 데 대한 유감과 함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토론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내용도 보인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역할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선거를 통해 나타내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언론·정세에 관한 내용

언론정세에 관한 내용으로는

‘MBC파업에 보며—공정방송 쟁취해야’, ‘언론민주화 아직도 멀어’, ‘대중매체 주체성 상실’, ‘썩은 정치 민중이 개혁해야’ 등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MBC파업에 보며...’는 정권의 홍보역할을 하는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며, 우리 모두가 공정방송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언론민주화 아직도 멀어’는 언론이 현정권의 이미지 정치속에 빠져 있음을 지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중매체 주체성 상실’은 현재 대중매체가 우리의 문화와 주체성을 상실하고 우리의 것을 배제한 채 서구의 것만을 받아들인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번 학기의 ‘독자의 소리’는 분야별 분포가 다양해지고 있는

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투고 형식에 있어 자발적인 경우가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사회 정세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활발한 독자투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타대학 신문의 경우, 만화 사진 등 여러 분야의 투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대학 ‘독자의 소리’는 아직 여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될 만하다.

마지막으로 ‘독자의 소리’가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에서든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고, 독자들도 ‘독자의 소리’를 통해 학교당국이나 본사에 전하고 싶은 개선사항, 이러한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투고 했으면 한다.

[김종섭기자]

공연평 '신 이춘풍전'을 보고

주제의식과 흥미 어우러지는 마당 아쉬워
지방극단 활성화 방안 모색할 때

'집 둘레나 건물부근에 단단하고 평평하게 닦아 놓은 땅'을 말하는 마당의 의미를 사전에서 배껴놓지 않더라도 마당극이란 예로부터 여덟집의 평평한 마당에서 구경꾼·배우가 따로없이 어우러지면서 배우의 인위적 연기가 아니라 마당에서 이웃과 얘기를 나누듯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극형식이다.

지난 11월22일 일요일 한라체육관에서 제주문화방송 창사24주년을 기념한 극단 미추의 '신 이춘풍전' 공연이 있었다. 마침 일요일이기도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드물게 있는 일이라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다.

전체 2부 각 부당 6장씩으로 구성된 '신이춘풍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춘풍은 주색잡기로 가산을 탕진하고 어린 부인 김씨는 시집을 매 갖고 온 패물을 털어 빚을 갚고 길앞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 형편이 퍼지자 춘풍은 다시 벼웃이 도져 호조에서 빚을 내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다.

다. 평양에서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장시밀전을 날리고 이를 알게된 춘풍의 김씨는 남장비장으로 가장, 춘풍을 구하고 장사밀전까지 구해온다. 한양으로 돌아온 춘풍이 자기를 구해준 것이 부인인 줄 모르고 거드름을 피우려 하자 부인 김씨는 이를 혼내준다.

마당놀이 출연진 전체가 2층을 돌아 마당으로 들어오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한 '신이춘풍전'은 코믹한 대사나 소품들로 해서 공연내내 관객들에게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

춘풍이 주색에 빠져 노는 야한(?)장면, 춘풍이 평양으로 떠나는 것을 막는 부인 김씨가 춘풍에게 맞는 장면에서, 이를 지켜 보는 부인역을 맡았던 배우가 갑자기 관객중의 남자의 벽살을 붙잡고 분풀이를 하는 장면, 기생에 빠진 춘풍이 자기 제물을 기생에게 퍼주다가 관객의 옷까지 빼앗아서 기생에게 넘겨주는 장면, 극 요소소소에서 코믹한 행동뿐 아니라, 관객을 극속으로 끌어들이므로 해서 더욱



◇ 11월22일 한라체육관에서 펼쳐진 신 이춘풍전의 한장면.

즐겁게 했다. 마당극 끝부분의 출판 역시 사람들의 흥을 돋우면서 모두 어우러지는 마당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내내 웃고 떠들고 난 다음 한편에서는 웬지 허전한

마음을 지을 길 없었다. 그 한바탕 웃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던가. 그 허전한 마음이란 그극과 우리 현실 사이에 긴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그런 한바탕 웃음이 주는 의

미도 각별한 것이지만 우리 생활의 문제, 우리 현실의 문제를 그런 한바탕으로 끌어들이 수는 없는 것일까. 주제의식과 흥미가 어우러지는 마당이 아쉬웠음은 기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제주문화방송창사기념을 위한 공연은 중앙극단에 의해 비교적 성공리에 끝났다. 지방극단의 활성화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다시금 생각해 하는 계기가 됐다. 이춘풍전을 관람한 많은 시민들을 본다면 좋은 공연만 있으면 관객은 얼마든지 동원된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하겠다. 지방극단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아쉽다.

【진명희기자】

원고모집

△교수·학생논문: 20매 내의
△시론(時論): 15매 내의
△독자의 소리: 4~5매
△공개집의 소리: 3매 내의
△기타: 시·수필·풍토·만화·만평·사진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일본에서 보았던 한국과 한국에서 본 일본
상냥함 강요받지 않는 한국인에 호감

이 글은 지난 10월초 승선실습차 우리학교 및 제주일원을 방문했던 일본 鹿児島대학 수산학부의 학생이 귀국 후 어업학과 손대준교수에게 보내는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은이 씀)

이번 실습으로 한국의 제주도에 갔던것은 나에게 있어 매우 행운이었다. 나 자신은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많이 본적도 없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해외의 문화나 자연을 접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 일본과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본을 가게 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한번은 가보고 싶은 나라이기도 했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상륙했지만 역시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아무래도 불안했다. 일상적인 회화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을 메모해 갔지만 어느정도 통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말은 통하지 않아도, 의외로 그 전하려는 뜻은 통했다. 길을 헤매며, 근처 가게의 아줌마에게 지도를 보이면 현재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주었다. 또 상점가에서 분식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물어보면 일부러 우리들을 분식집까지 데려다 주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물론 우리들은 전혀 한국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때에도 손짓발짓을 다 동원해야 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했지만 매우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와 같이 생각하므로써 폐쇄적이 되는 것이 더 마이너스가 되는 사고라는 것을 느꼈다. 구미인들 같이 불일성은 없지만 그만큼 상냥함을 강요받지 않는 것 같아 호감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들은 3일간 제주도에 체류했지만, 이 기간에 적어도 이 나라사람들의 감정, 사물에 대한 관심이 일본인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3일간 우리들은 시장이나 술집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손님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상품을 파는 방법이 일본과 비슷했다. 그런만큼 가게사람들과의 거래는 즐거웠다. 상품을 팔수 있는 한 싸게 살려고 흥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게를 둘러 보고 제일싼 가게를 찾는 방법을 기억하고 나서 또 한번 돌아다니는 것이 재미있었다. 하지만 물론 좋은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실패한 일도 많았다. 산물건이 다른가게에서는 반가격에 팔기도하고 말하고자 하는것이 잘 전달되지 않

아 가게주인을 친절부절하게 만드는데도 중종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가쓰사하르니'라고 하면, 예의없이 말을 반복하며 기분 좋게 웃어준다. 이 말 한마디로 몇 번이나 일이 잘 해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은 세계공통으로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생각했다.

또, 제주도의 축복받은 자연에도 감명받았다. 관광명소가 되어 있는 곳은 물론이지만 자연 그대로의 광경에도 볼만한 곳이 얼마든지 있었다. 사람의 손이 거의 미치지 않은 이러한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일본도 녹음이 풍부한 섬나라이지만 근대화의 대가로서 자연파괴가 행해졌다. 가능하면 이 제주도의 자연을 언제까지라도 소중히 했으면 한다.

또 우리들 일본인도 이제까지의 근대화 정책이나 레저시설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한국의 문화나 자연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좋은 경험이었다. 외국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산업은 중요한 산업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일본은 외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나라들이나 미국등과 수산업에 대해서 상호이해를 하고 연구나

권하고 싶은 책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사죽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읽어 보기를 권하는 사람으로서 이 번역서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모두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유태인들 특유의 강한 원죄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선과 악의 문제, 소유와 존재의 문제, 실존의 문제, 절망의 문제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카프카의 길이 본격적으로 안내되고 있다. 열마울까지 가는 지극히 짧은 길 『열마울』에서부터, 한 인간이 평생을 앓아 기다리며 온갖 노력을 다 해 보지만 이르지 못하는 법(法)에의 길 『법 앞에서의』를 지나, 확실한 것이라곤 죽음뿐 진정한 출구는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막막한 지하 건축 『굴(건축)』에서 그 길은 끝난다.

여기에서 소고되고 있는 많은 길들을 번역자는 출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번역된 『법 앞에서』, 『변신』, 『시골의사』 등의 글들도

바로 이런 고정된 관점에서 읽어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상징성이 풍부한 카프카의 글들을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 읽는 경우라면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독서태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부는 문학을 '진실의 탐험'으로 본 작가 자신의 문학관에 따라 삶의 참모습을 간략하면서도 깊이 있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과 인생에 대한 작가의 성찰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역사해설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번역서의 핵심은 제2부이다. 선입견 없는 독자가 카프카를 만나는 '길'같은 것을 느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소박한 소망에서 역자가 세심하게 끝까지 번역한 것이 바로 제2부이기 때문이다. 제2부의 전체로서 제시되고 있는 제1부와 제2부의 보완으로서 실린 제3부와 함께 어우러져서 비로소 한 권의 책이 되고 있음은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을 듯 싶다.

요컨대 이 책은 보다 나은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겨울방학을 깊이 있는 성찰로 채우는 데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약 3개월 간의 긴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틈틈이 짬을 내어 번역자 전영애 교수의 안내에 따라 카프카의 길을 걸으며 내면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송성희 독어독문학과부교수

■나의 제언

대출도서 반납기간 늦춰야

시험기간에 자료 어디서 찾으라는 건가

지난 11월17일자 제대신문에 보도된 도서관 전산화에 대한 기사를 보고 느낀 점이 있어 몇 가지 적어보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다.

기사를 읽고 나서 먼저 내년부터는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는 한 권의 책을 빌리기 위해 장시간 기다릴 필요도 없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대학의 심장이라 일컬어지는 도서관의 시설이 확충되는 게 우리 대학의 발전을 한걸음 앞당기는 데도 기여하리라 본다. 그런데, 이러한 반가움이 앞서는 반면, 당장 걱정할 만한 것까지 않을 수 없었다.

제대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도서관에 있는 모든 도서의 바-코드(Bar-code)화를 위해 모든 도서를 11월28일까지 반납하길 바란다는 도서관측 바람이 있었다. 우리학교 기말고사시각은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이다. 정식기간은 이 기간이지만, 더 빠르게 보는 과목들도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아무튼, 그럼 도대체 책을 반납한 후 학우들은 시험에 필요한 자료들을 어디서 찾아보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우리학교 대부분의 학우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자료를 찾아보고, 시험준비를 한다. 그리고, 시험기간이 되면 제출해야 될 보고서도 많다. 그렇게 되면, 많은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 데 말이 묶인것이나 다름없는 학우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도서관의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까지 꼭 이 시기에 책을 반납받아야 하는 이유를 도서관측에 물고싶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고려해 보길 부탁드리고 싶다. 반납기한은 기말시험이 끝날때까지 연장돼야 한다. 【김경미 사학과】

□잠깐 / 하지만 소중한 이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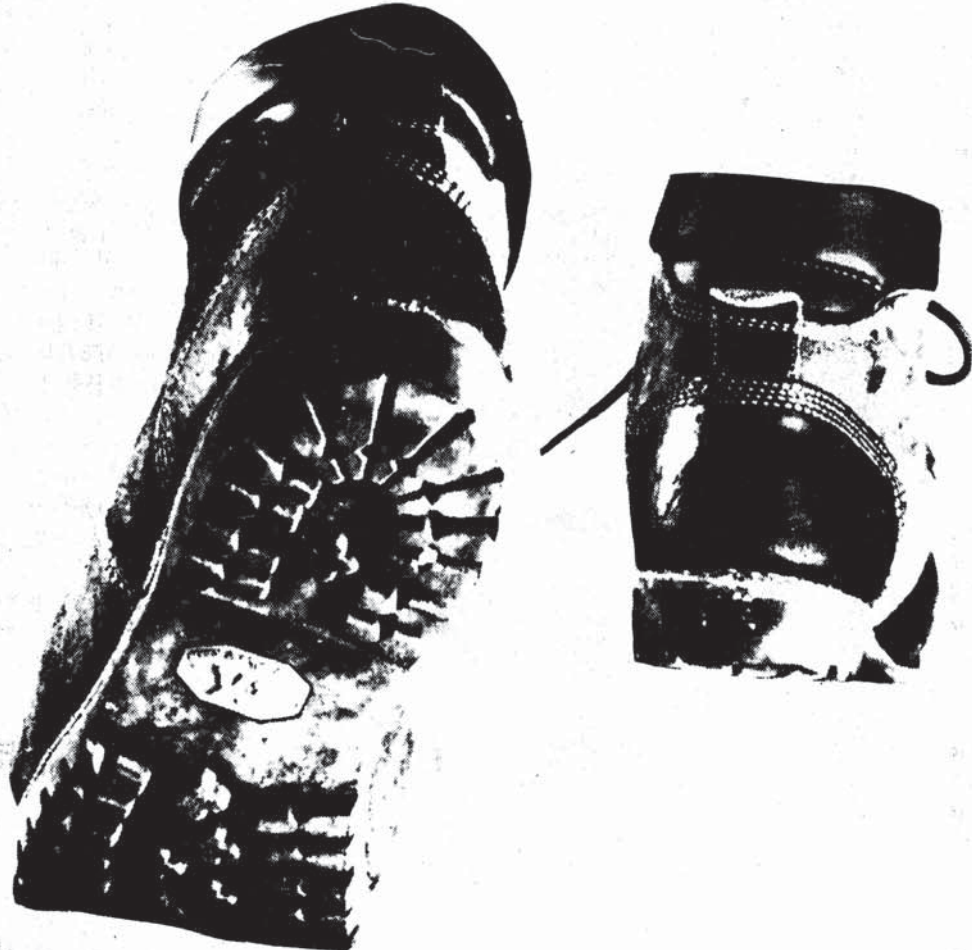
한 통의 편지로 따뜻한 마음을



방학이 다가옵니다. 시험에 쫓기면서도 방학설계는 다하고 계시겠죠. 못다한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 여행 등등 3개월간의 방학이 바쁘게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방학동안 바쁘게 지나다보면 서로를 잊고 지내는 수가 있습니다.

잠깐 펜을 들어 친구에게, 선후배에게, 교수님들에 따뜻한 편지 한통을 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학우들의 따뜻한 마음은 겨울을 녹이고 서로의 벽을 허무는 일이 되겠죠?

POSCO 메세지⑥ 2학기 종강편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쉬지는 말고

"우리 올해에는 꼭 해내고 말자"
우리는 이렇게 92년도를 시작했습니다.

92학년도의 종강이 다가온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급한 마음만 앞서 허둥지둥거리기 일쑤인 때입니다. 또 그러다보면 자신의 계획이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 진지하게 뒤돌아 볼 수도, 제대로 마무리할 수도 없겠죠.

우리 서두르지 맙시다.
우리가 보낸 92학년도를 찬찬히 정리해 봅시다.
후회의 아픔은 다음 해의 밑거름이 되도록 새겨두고
성취의 기쁨은 힘찬 계획을 낳도록 가슴에 담아 봅시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